

제420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2월 19일(목)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긴급 현안보고

상정된 안건

1. 긴급 현안보고 2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정부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국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급변하는 정치 상황으로 인해 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산업부를 비롯하여 기업들의 노력으로 수출, 외국인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부처 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 또 그다음에 이 업계, 산업계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각종 연말 모임이 취소되면서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고통이 커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생산 등 산업계 전반을 점검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 태세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기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비 증진 대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책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산업부·중기부·특허청 등 정부 부처가 최전선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산업과 민생경제를 아우르는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15년간,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 발전 비중을 결정할 국가기본계획인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소위 이후 논의를 끝마치지 못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하여 고준위법, 해상풍력법 그리고 전력망법 등 에너지 3법도 시급성을 고려하여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야 간사께서는 제11차 전기본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 및 법안 처리를 위한 소위 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양한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서로 협력하며 할 일을 해 왔습니다. 그 의미를 되살려 일정을 조속히 협의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 현안보고

(14시10분)

○위원장 이철규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우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무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련해서 최근 실물경제 동향 및 대응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최근 실물경제 동향 및 평가입니다.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생산, 투자, 유통 등에서 자동차 부문과 업 이외에는 특이동향 없이 정상적인 활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율 상승 등의 불확실성에 따라 산업 활동의 위축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표와 달리 현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 여건에 대한 걱정과 내년도 투자 결정에 대한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생산·투자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밀착 지원이 필요합니다.

2페이지, 무역·통상 분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12월 수출은 현재까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투자도 정상적으로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 신행정부 출범 등 대외 통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요 통상 협상 및 국제협력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출·외투·통상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나 해외 바이어의 불안심리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외국 기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에너지 분야입니다.

발전소, 전력망 등 에너지 시설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석유·가스 비축물량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도 평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동절기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불확실성이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경제·금융상황 점검 TF에 참여하여 실물경제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수출비상대책반 운영, 기업 등과 실시간 헫라인 가동 등을 통해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 해소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외신인도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한 만큼 글로벌기업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주요국과의 통상 채널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은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예상 이슈별 액션플랜 마련, 민관 연계 아우트리치 확대 등에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동절기 설비 고장, 폭설 등 변수에 대비해서 에너지 수급과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와 복지 지원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동절기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참담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특히 중소·벤처,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00만 중소기업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민생의 최일선 부처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의 노력으로 지체 없이 해제되었지만 우리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아직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소상공인 경기 전망 긴급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8%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더해 정국 불안에 따른 연말의 행사나 회식의 취소 등 소비심리 위축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들은 미국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보호무역 정책 기조에 대해 최근 사태에 따른 대외신인도의 영향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부자재 수입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입니다.

우선 7·3 종합대책 및 12월 5일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등 그간 발표한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12월 한 달간 개최하고 있으며 민관과 협력하여 전국적인 소비 진작 활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5년도 중기부 예산은 총 15.25조 원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9조 원과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6000억 등 업계가 필요로 하는 긴요한 사업들이 연초에 즉시 집행되도록 신속히 준비하여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면밀한 대응을 위해 민생경제 상황 점검·대응 TF 및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비 중소기업 지원 TF를 구성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범정부 대응체계인 경제금융상황점검TF에 참여하여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며 현안에 공동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안보고는 간단히 마무리하고 최근 사안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제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한 두 차례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긴급히 연락을 받고 참석하였으나 제일 마지막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은 어려웠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를 떠나기 전 국무총리께 비상계엄의 선포가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하였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무실로 이동해 주요 간부들을 소집했고 12월 4일 새벽 1시 긴급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그 주말까지 네 차례 간부회의를 실시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긴급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정부 합동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의 외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총리께 사의를 표명한 바 있으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소상공인 등 정책고객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끝까지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더욱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김완기 특허청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수경기 회복 지연과 글로벌 불확실성 심화로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허청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신속히 권리화하여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처리기간을 적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은 2022년 이후 36만 건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혁신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혁신 성과를 권리화하는 심사처리기간은 어려운 심사 여건으로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처리기간이 올해 들어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많이 늦은 상황입니다.

이에 특허청은 첨단산업 분야 중심으로 심사처리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2023년 반도체, 24년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서 내년에는 바이오·첨단로봇 분야에도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신규 채용하는 한편 전담심사조직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심사지원시스템 개발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바이오, 인공지능, 탄소중립 등 첨단·녹색기술 출원은 우선심사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빠르면서도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더불어 심사 품질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2쪽입니다.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지식재산 금융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으로 은행권의 지식재산담보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신규 지식재산펀드 조성이 위축되는 등 중소기업 자금 조달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허청은 회수지원기구 출연금을 추가 확보하여 지식재산 담보에 대한 은행의 회수 부담을 줄이고 지식재산담보대출을 촉진함으로써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위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신규 지식재산펀드를 조성하여 지식재산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공제를 통해 일시적 자금 리스크에 직면한 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식재산 분야 글로벌 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식재산을 매개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 2월 APEC 지식재산권 전문가 회의, 5월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 등을 통해 지식재산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동, 아세안 등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상호 우선심사 등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개도국에는 지식재산 교육, 정보화 등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앞선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선도국으로서 국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특허청은 최근의 상황을 매우 염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계속하는 한편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였습니다.

○김원이 위원 7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조금 들어 보세요. 말씀을 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하시면.

5분으로 정했습니다.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부터 질의하게 돼 있는데 그사이에 김원이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김원이 위원** 위원장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가 된 마당에 장갑차가 사당을 지나고 있고 곧이어 국회 앞에 등장하고 군 헬기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고 곧이어 총을 쳐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는 그 상황에서 국회 보좌진과 당직자들과 국회 직원들이 막아서고 자칫 그 상황에서 진짜 공포탄 한 발이라도 발사됐으면 혹은 그 와중에 좀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면, 저는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 사태로 인해서, 비상계엄 사태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내란의 의혹들 그리고 실제 내란 수괴로서 지금 지칭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런데 그 사태로 인해서 가장 피해 본 것은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소상공인들 지금 연말에 연말 장사 하나 해 가지고 한 해 먹고살아야 되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이때 여행객들 한번 잡아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로 인해서 먹고사는 호텔업자들 다 취소됐습니다.

이런 민생경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데 5분, 말이 됩니까? 질의하다 끝나겠네요. 7분 주십시오. 이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간사님, 여기 이 공간에 있는 어느 누구도 계엄에 참여하거나 동조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연肯대 다 반대하고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들 상호 간에 또한 부처에서 나오신 국무위원 또는 공직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마치 계엄에 동조하고 또 거기에 협력한 사람인 양 이렇게 단죄하는 분위기는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또한 오늘 질의에 현안질의를 그동안 우리 산자위가 관행대로 국감 때는 7분 주질의 또 그다음에 5분, 3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야 간사님 간에 협의를 하면서 종래대로 5분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일단 주질의를……

○**김원이 위원** 아니요. 저는 동의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아니 글쎄, 주장하고 또 7분 하자고 하셨는데 일단 5분씩 해 가지고 질의를 진행하시지요.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또 협의를 두 분이 좀 상의를 하시고요. 이것 가지고 논쟁하다 보면 시간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두 분이 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정호 위원** 예.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꼭 하시겠다는 분 말씀 주시지요.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해 주십시오.

그리면 김정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김정호 위원** 실물경제를 다루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한 시기에 가장 먼저 상임위를 열고 현안에 대해서 긴급대책을 세워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철규 위원장님이 속한 정당의 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겨우 전체회의 현안보고 받

고 현안질의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이게 통상적인, 일상적인 현안보고와 질의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안이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비상사태라고 인식을 같이하신다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중견기업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가뜩이나 여러 가지 복합위기에 이런 내란 사태까지 직면해서 직격탄을 우리 경제가 맞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물경제를 주로 다루는 산자부나 중기부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심각한 우려와 해법을 찾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시간이 그냥 한번 해 보자 이런 형식적인 현안보고와 질의가 아니라 문제가 더 끓기 전에, 더 악화되기 전에 정말 대처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분, 5분, 3분, 하루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할 이야기 다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철규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너무 그렇게……

○위원장 이철규 제가 경직되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선 질의를 시작하자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정호 위원 제가 경직됐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좋습니다. 제가……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지금 시국과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충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이 끝나셨으니까……

우리 여기……

○박상웅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이철규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 오늘 보고하러 온 산업부나 또 중기부나 또 특허청은 이번에 비상계엄에 관련된 부처도 전혀 아닙니다. 여기가 국방위도 아니고 행안위도 아닙니다. 또한 법사위도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만큼은 그동안 비상계엄 이후에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 속에서도 산업부나 중기부나, 특허청은 조금 비켜나 있다고 보겠지만 두 개의 부처가 혼들림 없이 민생 또 산업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이 자리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와 또한 당부의 시간이 돼야 맞지 우리가 이분들보고 비상계엄에 왜 동조를 했느냐 뭐냐 추궁, 정치적 책임을 묻는 이런 자리가 돼서는…… 오히려 말로는 우리가 산업 현장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돌본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러는 것은 제가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그사이에 두 개 부처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과 또 그다음에 질책 또 그다음에 대책을 촉구하는 이런 자리로 이 자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상웅 위원** 지금 7분, 5분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제로 내세울 여러 가지 안건들이 많고 따져 볼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우선은 원안대로 5분씩 먼저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발언을 통해서 메워 나가야지 시작하자마자 7분씩 끌고 나가고 답변 오래 가면 중요한 발언을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좀 짧게 압축적으로 이야기해서 5분 안에 핵심 키워드는 다 하고 그다음 모자라는 것 있으면, 또 위원님들이 중언부언해서 겹치는 부분도 워낙 많을 거니까 5분으로 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 발언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해서 회의를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그리면 의사진행발언도 단축시켜 주시고요.

박성민 간사님 말씀하세요.

○**박성민 위원**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말씀……

12월 3일 이후로 우리나라 전체가 그랬고 또 민주당이나 우리 당도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졌고 또 긴급히 점검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실물경제, 산업 전반에 관한 점검을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우선 시급한 일들은 좀 커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간사로서 했고 오늘 정도쯤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그동안 상황들에 대해서 좀 짚어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시기를 이렇게 적절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7분, 5분 그 문제도 사실은 해 보면 늘 중복되는 말, 이런저런 또 중언부언 계속하는데……

○**김원이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철규** 잠깐만 말씀……

간사님 말씀 계속하세요.

○**박성민 위원** 그 이야기하는데 뭐 자꾸……

○**김원이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분이라도 압축적으로 하다 보면 추가로 할 일이 있으면 또 더 해야 되고, 더 해야지요. 그러나 했던 이야기를 계속할 수도 없고 또 지금 현안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비상계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듣고 또 답변도 한번 봐 가면서 그렇게 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허성무 위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발언을 할 것이고 시간을 어떻게 할 거고 추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뭘 정해 놓고 하는 게 기본인데 이게 정해지지도 않고 회의를 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회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5분·3분을 하든 7분·5분·3분을 하든 뭔가 제대로 정리를 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중언부언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걸 도대체 누가 알며……

○**위원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리고 누가 계엄 관련된 발언을 얼마나 할 건지 어떻게 그렇게, 위원장

님이 미리 사전에 규정하고 발언을 제어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회의 진행상 너무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발언들이 있고 질문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제재와 제한을 먼저 걸어 가는 방식으로 회의를 축소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됐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허성무 위원 예.

○위원장 이철규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제가 발언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 여야 간사 간에 시간에 주장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저도 이 상임위를, 산자위를 7년 하면서 7년간 내려온 관행과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해서…… 산자위를 하면서 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을 맡아 오셨는데 그때도 늘 이런 방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는 관행을 존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우리가 실물경제, 산업 정책 그다음에 민생 문제를 하자고 하면서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우려를 전해 드린 거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회의가 산업 현장과 실태를 점검하고 민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지 여기서 저분들을 놓고 계엄에 대한 추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산자위의 본질적 기능하고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인데…… 발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에 어떤 발언을 하든 간에 그걸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국회의 어떤 특정 위원장님처럼 그걸 강제로 제지할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하실 때 제한 없이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지혜 위원 위원장님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하시는 데요. 저희 12월 3일 이후에 16일 만에 상임위 처음 하는 겁니다. 저희가 두 번이나 요구서도 냈었는데 계속 무산이 됐고요. 정말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질의 시간 관련해서는요. 저희 관행을 말씀하시는 데 저는 관행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도 그냥 매번 7·5·3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당 간사 합의를 요청하시면서 매번 이렇게 질의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7·5·3으로 정하고 질의하시지 않고 먼저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국감 때도 질의 시간이 가장 짧았던 상임위예요.

○위원장 이철규 예, 맞습니다.

○박지혜 위원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가장 먼저 끝났고요. 그냥 7·5·3 정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 저는 그게 국회의 관행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의 어떤 관행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지혜 위원님, 관행대로 하자는 게 제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원이 많으니까, 서른 분이고, 열다섯 분 있는 다른 데하고……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시작하면서 두 분이 협의를 하시라니까……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질의 가지고……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아까 신청하셨지요?

○이종배 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이철규 의사진행발언 간략히 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이번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습니다. 우리 산자위원님들, 민생경제 또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오늘 회의를 요청했고 우리가 참석을 했는데 그래도 정부의 보고를 들어 보니까 생산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데 별 차질이 없고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수급도 별문제 없고 수출에도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위축돼 있고 또 지금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더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런 보고를 오늘 들었는데 위원님들 오늘 질의하시는 것들이,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리스크 관리하고 또 대책을 잘 강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 지적하려고 오늘 회의를 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미진한 부분 같은 것은 더 지적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다른 외국 기관이라든지 바이어들 이런 분들도 우리 산자위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아마 예의 주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당파나 이런 것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우리 경제를 돋기 위해서, 민생경제를 돋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정부의 보고라든지 정부의 대응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저는 한 5분 정도 해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또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은 그만해 주시고요.

여야 간사 간에 아마 협의를 해서 보충질의가 없는 주질의로 끝내되 시간은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7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화하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충질의 없이 7분 질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으니까 주질의 시간이 7분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먼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 사태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하신 것을 뒤늦게 인정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뒤늦게……

○박지혜 위원 12월 3일 일정을 보면 1시에 서울에서 업무회의가 있었고 다른 일정은 없으셨는데 10시 20분경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연락을 받고 참석하셨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는 9시 40분경에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국무회의, 그 당시는 국무회의……

○박지혜 위원 어떤 내용의 연락을 받으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대통령께서 찾으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박지혜 위원** 국무회의라는 말씀은 없으셨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없었습니다.

○**박지혜 위원** 안전에 대해서도 그러면 모르는 상황이셨겠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데 심야에 이렇게 대통령님이 찾으시는 경우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가시면서 왜 찾으시는지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시거나 그런 시도는 안 해 보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런데……

○**박지혜 위원** 이미 그 장소에 계시는 다른 국무위원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때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다른 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기는 좀 어려웠고요. 저희 비서실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민생 대책과 관련해서 12월, 그 전날 저희가 민토도 있고 해서……

○**박지혜 위원**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가셨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런 여러 가지 민생 대책과 관련된 사안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러면 12월 3일 이전에 계엄선포의 가능성에 대해서 들어 보실 기회는 없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러면 계엄선포 예정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장소에 도착하셨을 때 계엄선포 예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는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마지막에 도착을 했고……

○**박지혜 위원** 가장 마지막에 도착하셨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대통령께서 즉시 이석을 하셔서 이후에 바로……

○**박지혜 위원** 그러면 대통령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들으셨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대통령님이 제 기억에 거의 가장 짧은 시간에 이석을 하시고 이후 선포를 하러 내려가신 걸로 나중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상황을 인지하는 데는 현장에서 이후에 인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러면 계엄선포와 관련해서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처음 드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계엄선포와 관련된 이야기는 대통령이 이석하시고 참석하셨던 여러 국무위원들께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때……

○**박지혜 위원**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약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잠시, 힘들었지요.

○**박지혜 위원**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당연히 비상계엄의 선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선포하러 가신다는 생각은 선포하실 때 알았고요, 저는. 잠시 이석하셨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가 그런 선포를 위한 논의다 하는 것도 말씀하실 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비상계엄에 동의하거나 그걸 필요하다 하신 국무위원은 없었습니다.

○**박지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비현실적인 내용이고요. 계엄법을 보게 되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비상계엄의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지금 보니까 절차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라고 통지를 받고 가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에 부서나 그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없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박지혜 위원** 그래서 이번 계엄선포가 위헌·위법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제가 참석했던 국무회의가 평상시에 하는 국무회의와의 어떤 절차나 형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지혜 위원**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박지혜 위원** 수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실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탄핵소추가 있는 부분에서……

○**박지혜 위원** 계엄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국무위원으로서 이게 맞는 판단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그 당시에는 제가 늦게 가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나올 때 총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박지혜 위원** 아니,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의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그래서 제가 계엄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혜 위원** 위헌·위법한 것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박지혜 위원** 비상계엄 선포할 당시에 외교부장관님이나 기재부장관님은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는데 장관님은 전혀 전달받으신 건 없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는 정말 한 수 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박지혜 위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1시경에 비상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서는 어떤 논의를 하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서울에 있는 사무실로 제가 먼저 이동을 하고 관련돼 있는 간부들이 대개 세종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박지혜 위원 어떤 논의를 하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많이 못 오는 상황이었고요. TV를 보면서 결국은 저는 민생의 접점에 있는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런 부분들을 논의했습니다.

○박지혜 위원 당시 1시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잖아요. 모르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박지혜 위원 그러면 어떤 논의를 하셨나요, 1시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1시에 모였을 때는 곧 해제가 되기 직전에 있었고 저희가 해제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간부들이 다 보면서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에 이루어질 국무회의에서 해제 결의가 의결이 필요하다 그런 논의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러면 해제 결의를 위해서 용산에는 언제 가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용산에서 요청이 들어온 시간이 제가 한 2시 20여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무조정실에서……

○박지혜 위원 언제 가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바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도착한 시간은 한 3시 십몇 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박지혜 위원 바로 이동을 하셨는데 3시가 넘어서 도착하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바로 이동이라 하면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이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실에 계속 있었고 제가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를 여쭤봤고……

○박지혜 위원 당시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19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해제 표결을 하고 뜬눈으로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해제 결정이 이루어질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장관님께서 앞서 사과를 하시기는 했지만 국무위원으로서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앞서 사과하신 것처럼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오영주 장관님,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윤석열이 얘기한 비상계엄의 사유가 비상계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계엄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원이 위원** 본인은 그러면 비상계엄 사유가 안 된다고 그래서 사과하신 거 아니에요? 왜 사과하신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사유가 안 되니까 반대하신 거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반대한다는 의견을 드린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우려도 표명한 거고. 결국 비상계엄 선포가 강행됐으니 위헌·위법한 상황이 전개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계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말씀드렸고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왜 반대하냐고요, 왜 반대하냐고.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위헌·위법한 것을……

○**위원장 이철규** 아니 위원님들, 질의할 때 중간에 좀……

○**김원이 위원** 잠깐만요. 위헌·위법한 것을 알고 반대하신 거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그 부분에……

○**김원이 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했겠지요.

○**김한규 위원** 말장난 그만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그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잠깐, 저기 스톱시켜 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말장난이 아니고 위원님, 저희가……

○**위원장 이철규** 스톱시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지금 탄핵소추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질의를 잠깐만 중단……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오늘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조금 감정이 격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나와 계시는 국무위원들과 또 우리 정부 부처 공직자들, 마치 죄인 추궁하듯이 이렇게 윽박지르고 하시는 모습이……

○**김원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국민들께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고 또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시는 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또 질문을 하신다든가 또는 질책을 하시는 모습은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 다시, 계속 진행하십시오.

○**김원이 위원** 한 30초는 더 늘려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철규** 아니, 그냥 스톱을 시켰어요 바로요. 진행하세요.

○**김원이 위원** 장관님, 그런 위헌·위법한 상황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니까 반대하신 거지요? 제가 차분하게 묻는 겁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 김원이 위원 저기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특별하게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 결로 하겠습니다.

○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요. 반대한 이유가, 반대를 했다는 것은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어기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위헌·위법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반대하지 그게 적법하고 좋은 거였으면 반대하겠어요, 장관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반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요.

그래서 위헌적이고 위법한 내란 사태를 알았어요, 비상계엄을 알았어. 안 즉시 무슨 행동을 했어요? 그 사실을 국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그걸 막기 위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제가……

○ 김원이 위원 아무것도 안 했지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제가 들어……

○ 김원이 위원 들으세요. 듣고 계세요.

장관은 공직 생활 몇 년 했지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37년입니다.

○ 김원이 위원 37년 했지요. 장관님 같은 분이 사무관으로 시작해서 장관까지 올라오는 37년 기간 동안,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신 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책임·권한을 가진,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알고 있습니다.

○ 김원이 위원 그렇게 대한민국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그런 큰 권한을 가진 만큼 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겠다는 생각 안 했습니까? 목숨 걸고라도 막았어야지요. 그리고 국회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국회나 이런 데다 알렸어야지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중기부로 돌아가시지요? 그리고 1시부터 아까 긴급 간부회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뒤에 있는 간부님들, 중기부·산자부 다 포함해서 이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에 사직·사표를 낸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말씀드리……

○ 김원이 위원 법무부는 한 명 있습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라고 그 양반은 사표를 내, 이런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자기는 여기에 있을 수 없다고 사표를 한 분 냈습니다. 뒤에 계시는 실국장님들,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사표의 의사를 표명한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참…… 중기부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고 그러면서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에 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가지고 싸웁니다. 장갑차 앞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총을 찬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할 때 그거를 국회 직원들이 온몸으로 막아요. 보좌관들이 막아요. 국회의원들은 정말 공포에 떨면서 본회의장을 지켜요.

그래서 몇 시에 통과시키지요? 비상계엄 해제가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계엄사령부에서 1시 37분에, 즉 비상계엄 해제가 결의된 이후인 30분 후 1시 37분에 계엄사령부에서 중기부에 인력 파견 요청이 왔던 거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최근에 보고받았습니다.

○김원이 위원 최근에? 그때는 몰랐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원이 위원 계엄사령부의 전화를 받자마자 그 즉시 중기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조치했는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 기획관이 계엄……

○김원이 위원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했지요,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그게 기본적으로 전화를 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만 들었습니다.

○김원이 위원 저기요. 평상시라면 이해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연습의 상황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저도 을지훈련 많이 해 본 사람인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 상황은 그 전날 12월 3일 10시 30분에 비상계엄 사태가 선포됐고 12월 4일 새벽 1시 1분, 30분 전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국회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30분 후에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파견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동의해 준 거예요. 물론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안 보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면서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연락관 파견 요청이 있어서 담당 국·과장 협의로 비상재난 업무 담당자를 대상자로 통보했다. 하지만 곧 계엄이 해제돼서 실제 파견 안 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30분 이후에도, 국회의 표결이 있은 이후에도 합동참모본부라고 하는 계엄사령부에서 사람을 파견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도 이건 정말 위헌·위법한 상황, 즉 2차 계엄의 시도가 실제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징표이고 그 2차 계엄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국회 표결을 한 이후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이런 영혼 없는 답변, 이런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어요? 나라의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30분 후에 계엄사령부에 사람을 보내겠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장관, 얘기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직원이 조금 판단을 잘못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쟁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이 자료 한 줄에 중기부의 사과와 반성, ‘저희들이 잘못 조치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가기를…… 30초만 더 주세요.

○위원장 이철규 그냥 하십시오.

○김원이 위원 그런 말이 들어가기를 바랐어요. 사과가, ‘저희가 1시 1분에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1시 37분에 잘못된 계엄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응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한 줄이 들어가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계엄사령관은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저한테 보내 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실무자가 너무 행정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 표결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계엄사령부의 명령을 듣냐고요. 그러면 당연히 통보받은 즉시 계엄사령부는 권한 없는 권력을 행사하지 마라고 따졌어야지요. 그런 배짱 없는 공무원들이 공무원 왜 합니까? 다 옷 벗으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간사님, 이제 끝내 주시고……

○김원이 위원 장관님, 사과하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특별한 의사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뒤에 사족은 빼시고 사과만 하세요, 제발.

○위원장 이철규 충분히 지적이 됐으니까……

○김원이 위원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뒤에 사족 빼고 다시 사과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사과드립니다.

.....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여야 위원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산업부에 중간 정도 경력 가지고 있는 국장님 계세요? 산업부 국장님들 중에 중간 기수가 누구십니까? 한번 일어서 보세요. 중간 기수에 계신 분 누구세요? 괜찮아요.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일어서 보세요.

몇 년도에 공직에 들어오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안창용 1999년……

○위원장 이철규 99년도에 들어오셨지요?

이쪽에 또 중기부에 중간 기수 국장님이 누구세요? 중기부의 무슨 국장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노용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몇 년도에 입직하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노용석 98년에 입직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98년도에? 그러면 그때 입직하셨으면 지금 30년을 채 못 하신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노용석 27년……

○위원장 이철규 27년 하셨지요? 두 분 다 앉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장차관을 제외한 공직자들은 직업공무원입니다. 직업공무원들이 이런 고도의 정치적 행위 또는 정무적 반응을……

○김원이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과합니다.

○ **김한규 위원** 그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지요.

○ **위원장 이철규** 잠깐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영혼이 없니, 공무원들을 질책하시는 것은 저분들이 30년 가까이 공직을 하면서……

○ **김원이 위원** 저분들이 가장 법을 지켜야 되실 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 **박지혜 위원** 아니, 해제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그냥 회의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이철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저분들이 모욕을…… 저는 질책을 하라는 말입니다. 하는데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하는 것과 영혼이 없니 뭐니 하면서 공직사회 전체를 이렇게 펌훼하는 것은……

○ **김원이 위원** 그러면 잘한 겁니까, 위원장님?

○ **박지혜 위원** 지금도 제대로 의견을 말씀 안 하시잖아요.

○ **위원장 이철규** 아니 위원님, 나중에 말씀하세요.

저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이 15년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을 그 정권에서도 공직을 담당해 왔고 양쪽을 왔다 갔다하면서 다 해 왔는데 제발 공직자들을 영혼이 없니 이런 말씀은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제해 주시기를……

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경원 위원** 서울 동작을 출신 나경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결국 최근의 실물경제 동향 및 대응 계획에 관한 회의입니다.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많이 분노하시는 것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의 어느 위원도 대통령께서 계엄을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위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제 요구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제 요구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그날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일찍 그렇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우리 모두 당사로 복귀해서 해제 요구를……

○ **장철민 위원** 국민들 탓을 하는 건 아니지요.

(「그게 어떻게 국민들 잘못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 **박상민 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왜 어렵니까?

○ **나경원 위원** 그래서 저희가 당사에 있었지만 똑같은 의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는……

좀 들으세요. 민주당 위원님들 들으세요.

○ **정진욱 위원** 사실이 다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고 했잖아요. 왜 그것 을 숨깁니까?

○ **김원이 위원** 자, 들으세요.

○ **박성민 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 나경원 위원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 정진욱 위원 왜 국민을 속입니까?
- 나경원 위원 들으세요.
- 박성민 위원 왜 일방적으로 이야기합니까?
- 박상웅 위원 사실대로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면 들어 줘야지, 일단은.
- 정진욱 위원 아니, 지금 국민 때문에 못 들어온 것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 장철민 위원 그래도 국민들 탓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 박성민 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저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자, 정진욱 위원님……
- 정진욱 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 장철민 위원 다른 논리는 그래도 국민들 탓을 하는 것은 진짜 아니지.
- 박성민 위원 저도 실제 겪었던 이야기……
- 나경원 위원 저희가 국회 경내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 정진욱 위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 나경원 위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 박성민 위원 보지도 않았으면서 저렇게 몰아붙이나.
- 정진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회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나경원 위원님은.
- 나경원 위원 여러분, 오늘……
- 박성민 위원 왜 일방적으로 몰아붙입니까?
- 김원이 위원 간사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 박성민 위원 아니, 나도 겪었다니까요, 이렇게.
- 박상웅 위원 발언하도록 도와줘야지 동료 위원이 발언을 못 하게 하면 되나?
- 장철민 위원 국민들 탓하는 것은 진짜 아니에요. 진짜 큰일 날 일이야.
- 나경원 위원 이제는 우리가 차분해져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는……
- 정진욱 위원 그 당시에도 국회로 와야 된다고 말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습니다.
- 박상웅 위원 이렇게 할 바에는 오늘 회의하지 마.
- 나경원 위원 이제는, 이제는……
- 장철민 위원 아니, 국민들 탓 하신 것은 정정하셔야 돼요. 진짜 큰일 날 얘기예요.
- 박상웅 위원 이렇게 회의할 바에는 회의를 왜 해?
- 위원장 이철규 잠시 두 분 간사님들 가서 좀 얘기를 하세요.
- 나경원 위원 계엄 사태를 지나서 이제는 탄핵 절차가 끝났습니다. 헌법 절차와 법의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맡기고 우리는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뭉니까, 여러분?
- 정진욱 위원 사실을 호도하니까 그러지요.
- 나경원 위원 오늘 회의의 목적이 뭉니까?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회가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아서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날의 일정을 다시……
- 이언주 위원 경제 혼자 걱정합니까? 그만 잘난 척하세요. 경제 혼자 걱정합니까? 그만

잘난 척하세요.

○**박상웅 위원** 말을 해도…… 이언주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나경원 위원** 다시 복기하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언주 위원** 보자보자 하니까 진짜 너무 심하네.

○**위원장 이철규** 나경원 위원님, 잠깐 질의 중단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질의 중단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이제는……

○**위원장 이철규** 잠깐 질의 중단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런 상태로 질의가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려했던 게 이런 부분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이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볼 겁니다. 또한 해외의 대한민국과 거래하는 또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의 기업 또 정부도 이 모습을 바라볼 겁니다.

좋습니다. 법사위나 국방위나 행안위 정도에서 이러한 계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하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렇게 진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그다음에 우리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제가 여야 간사간에 협의도 하고 했는데. 특히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다르시면 본인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질의 과정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현안질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제 말씀의 취지는 이제는 헌법과 법의 절차로 넘어갔으니 좀 차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산업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부장관께서는 16일 산업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이 실물경제의 영향에 아직은 제한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나경원 위원** 최근 S&P, 피치, 무디스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에서도 탄핵 정국에도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한국은행 또한 지난 15일 발간한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서도 과거 탄핵 국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국가 성장률 및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한 것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나경원 위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서 소상공인 피해와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제가 저희 지역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도심에서라든지 이렇게 주요 관광지에서 상권이 굉장히 붕괴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헌법과 법의 절차를 좀 차분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다리고 이것은 이제는 헌법과 법의 절차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보니까 또 탄핵 찬반 시위가 아직도, 이번 주말에도 있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소비심리라든지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의 그런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그런 평가를 내렸던 것은 지금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이게 다행히 계엄선포가 되고 그다음에 바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류가 잘못된다거나 수입·수출 결제가 잘못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화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정치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하게 가면서 글로벌하게 우려가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에 예산이 대폭 감액되어서, 상당히 감액 통과된 예산안도 소비심리 위축을 가속화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은행 총재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4조 1000억 원 감액된 예산안이 경제성장률 0.06% 정도를 낮춘다고 하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 산업부로서도 매우 중요하게 추진을 하고 있던 동해 가스전 사업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산중위에서 그 예산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예결위 단계에서 그게 갑자기 삭감이 되면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감액해서 통과한 다음에 바로 국회 추경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은 예산이 민생경제의 방파제니까…… 지금 보면 대왕고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에너지 공동연구, 많은 중요한 산업·사업들 예산을 다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지금 오히려 재정 투입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중소기업부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입법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께서 다행히 국회의 증언 및 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결국 기업 비밀이 상당히 유출될 수 있는 법안 아닙니까?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저께 경제 6단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를 해 가지고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래서 이러한 법안도…… 사실은 지난 4년간 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많고, 23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조금, 저희도 국회에서

논의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민주당의 위원님들께도 많은 설득을 해 주시고, 상법 개정안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 여야 위원들과 대화 많이 해 주시고요.

저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매뉴얼 따라 행동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서 보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법적 저촉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더 실물경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장관들께서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저희가 최근에 외국인투자 기업들이나 외국상의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이미 우리나라 산업은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외국상의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중위 위원님들께 입법,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력을 했던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 산자부장관님,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동 명분 중에서 민주당의 예산 삭감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이렇게 계엄 포고문에서 얘기를 했어요.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무려 90% 깎아 버렸다, 이게 사실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저희.....

○**김정호 위원** 됐고요. 한 푼도 깎은 것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가짜뉴스를 대통령이 엄중한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면서 이것 갖다 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 경위는.....

○**김정호 위원** 체코 원전 수출하는 모델이 AP1000이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90% 감액된 사업은 뭐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 산업부의 이 원전 관련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4887억 원 예산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됐습니다. 90% 감액된 그 사례를 들었는데 뭐가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마 여타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같은 것들을.....

○**김정호 위원** 그렇지요. 과기부 쪽의 차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기본설계 사업비 이게 줄었어요. 이게 산자부의 원전 수출 지원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 거의 전액 삭감했다 이렇게 포고문에 나와 있어요. 산자부 예산 중에서 차세대 원전 사업비가 뭐뭐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입니까? 몰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말씀하신 그게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어서……

○**김정호 위원** 뭐가 여러 가지예요, 예산 항목이 딱 나와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i-SMR도 있고……

○**김정호 위원**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비 54억 600만 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R&D)사업비 329억 2000만 원, 과기부 것도 530억, 단 한 푼도 차세대 원전 관련해서 정부 예산안 깎은 것 없습니다. 100% 정부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그것도 대통령이 비상계엄하는 사유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거짓말해서 되겠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좋습니다. 이것 사실이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관련된 참모로서 사과하세요, 이런 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비상계엄 발동 요건으로, 명분으로 쓰였다는 것. 예산 삭감한 것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예산은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또 묻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서 미국 에너지부와 지식재산권 협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그 업체들 간의 소송보다는 좀 더 건설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MOU 체결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것은 정부 간의 원전 수출에 관련된……

○**김정호 위원** 정부 간의 수출통제 관리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결국 미국 에너지법이나 연방 규정에 따른 수출통제 계속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양국이 수출통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정호 위원**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동등한 그런 협상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양국이……

○**김정호 위원** 잠깐만요.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이 내년 3월인데 내년 말까지 중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중재에 나서지 않는다고요?

○**김정호 위원** 타협하지 않겠다.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기업 간에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김정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하시고요.

프랑스 EDF나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경쟁보호청에 진정을 냈고 1심에서는 사유가 기각되었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 만에 그게 기각이 되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사유가 뭐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 자격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 **김정호 위원** 자격 요건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 15일 이내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한참 뒤에 했다 해서 기각한 거고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 말씀입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어서……

○ **김정호 위원** 정작 항소를 했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2심,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했지요. 이것은 왜 했겠어요? 진정 내용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어요, 1심에서는. 그래서 이게 최종 계약 체결이 보류되어 있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것은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아니, 보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것을 보류됐다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김정호 위원** 중단되어 있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내년 3월까지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 **김정호 위원** 아니, 그것 알고 있어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시겠지만 방문단이 와서 실사단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절차는 진행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게 계약 범위가 두코바니 1기에서 테플린 3·4호기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이게 그 기간에, 15일 이내에 할 수 없었다. 이게 한수원 컨소시엄을 도와주기 위해서, 불공정한 거래다. 뿐만 아니라 EU 역외보조금 규정도 위반한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이 항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체코 반독점 당국이 심각하게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중에 하는……

○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 입장은 국회에서 자꾸 말씀하시면……

○ **김정호 위원** 충분히 알고 있고, 좀 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프랑스 EDF가 유럽 집행위원회에다가 EU 역외보조금 조사 요청했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 **김정호 위원** EU가 한국 현장조사 왔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현장조사, 그런 건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김정호 위원** 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이 체코 원전도 크게 장애가 조성되었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더더욱 이게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죽 제가 모니터링하고 스터디한 결과 과연 이게 끝까지 가서 우리 한국 원전 산업계, 우리 국익에 도대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심각하게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죽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전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산자부 측에서 우리 원전 산업의 독자적인 기술, 독자적인 수출을 지금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드러난 것은, 윤석열 씨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원천기술 보유국의 승인이 불가피하고 수출통제 절차도 따라야 된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게 11월 7일 기자회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 이철규 이제 그만 정리해 주시지요.

○김정호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원천기술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한국이 국제특허 하나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전에 죽 열거했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오히려 이익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다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이 불공정한 구조에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버는 격이 되지 않느냐.

이것 심각하게, 무리하게 출혈수출 밀어붙이지 말고 진지하게…… 지금 상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만큼 산자부도 냉정하게 국익 차원에서 한 번 더 다시 살펴보시고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 말씀하고 그다음에 예전에도 몇 차례 강조를 해주셨고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몇 번 짚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지금 체코 측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 같은 것들이 문제가 안 되게,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상당한 손실을 우리가 감수하고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손실을 감수하는 사업이면 프랑스나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저기다가 그것을 하겠다고 따라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원전 사업 중에 사실 가장 유망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국내 원전 생태계를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적으로 이것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협조 좀 해 주시지요. 중진 위원님께서……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조 원이 한수원 컨소시엄이……

○위원장 이철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되잖아요.

○김정호 위원 수주한 건설비, 사업비가 맞습니까? 분명히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게 제가 거듭……

○ **김정호 위원** 나중에 이것 문제가 될 답변입니다.

○ **위원장 이철규** 장관님, 그만하시고요.

○ **김정호 위원** 답변하세요.

○ **위원장 이철규** 이게 속기록에 남고 내외신에서 보는데 대한민국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상 사업비가 24조 원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계약……

○ **김정호 위원** 우리가 수주한 건설비가 얼마냐는 거예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그것은, 계약은 앞으로 3월 달에 1호기가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 **김정호 위원** 아니, 대통령은 내내 24조 원 이야기했잖아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앞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1기가 계약이 될 거고……

○ **위원장 이철규** 장관님, 그만두시고요.

잠깐만요.

여기 기록에 남고 내외신이 보는데, 우리가 원전 관련해 가지고 국제특허가 하나도 없나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그런 걸 명확하게 답변하셔야지.

○ **김정호 위원** 무슨 특허가 있어요, 핵심기술에.

○ **위원장 이철규** 우리가 원전 관련된 국제특허 하나 없는 나라로 알려지면 되겠습니까?

○ **김정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야기해 보세요. 특허가 뭐 있습니까, 핵심기술에? 원자로 부분에 무슨 기술이 특허가 있습니까?

○ **박형수 위원** 우리도 질의 좀 합시다. 혼자서 다 하십니까?

○ **위원장 이철규** 이것은 명확하게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원전 관련해 가지고 국제특허가 몇 건인지는 당장 나오지 않겠지만……

특허청장님!

○ **특허청장 김완기** 예.

○ **위원장 이철규** 우리 원전 관련해서 국제특허가 출원된 게 상당수가 있나요, 없나요?

○ **특허청장 김완기**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이런 걸 지금 구체적으로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 **김정호 위원** 원천기술에 뭐가 있어요?

○ **위원장 이철규** 우리가 원전의 기술 강국이라는 것은 세계 각국이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에 혹여라도 누가 될까 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산업부장관은 이 사업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사실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체코 측에서는 국내의 이런 상황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산중위의 위원님들께서 의원외교 차원에서 체코를 좀 가서 우리가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어렵지만 국가적으로 약속한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의원외교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저도 2019년도에, 야당 시절에 당시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님과 또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함께 동행해서 체코에 원전 수주를 위해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체코 원전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국내 정치 상황하고 관계없이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한다는 이런 의지를, 시그널을 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웅 위원 중기부장관님, 지금 현재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들의 민생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박상웅 위원 연말에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매우 위태로운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복안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금융위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융위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월부터는 바로 시행이 될 거라서……

○박상웅 위원 그 시기를 좀 당길 방법이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금융위에게 빠른 시행을 제가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좀 더 빨리 시행을 해서 민생부터 챙겨 나가야 하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리고 산자부장관님,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곧 출범을 할 텐데 이미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미국에 1000억 불 투자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경제협력이 미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자꾸 한국을 패싱한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필요한 이야기가 국내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대미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창구를 어디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모든 부처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이 최근에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을 부각해서 저희 산업부가 앞장서서 그런 대미 협력 창구들을 지금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탄핵 정국 속에서 모든 게 묻혀 버렸어요. 그래서 국민 불안감이 자꾸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산자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래야 국내 투자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설비투자도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인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빨리 마련해서 제시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리고 환율 문제로 인해서 우리 수입업체들이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에 부치면 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입보험에 의한 대출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저희가 환변동보험이나 수입보험 같은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 규모를 1.5배로 확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사실 계엄이나 탄핵이나 이런 부분은 제도권 정치에서 가장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여당 의원들도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 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저 역시 그랬고. 그래서 이게 현실이 되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런 쓰나미가 몰려오고 큰 해일이 일어나듯이 요동을 치면 배가 전복이 됩니다. 체제가 전복이 돼요. 여야가 없이 국가 질서가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고 우리 민생을 지켜 주고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힘은 여기 계신 산자위와 거기 배석해 계신 여러분들의 혁신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경제와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거기 뒤에 배석해 계신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 최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사명의식을 지금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엄이나 탄핵 사태에 주눅 들고 혼들리고 그렇게 해서 아침저녁으로 논리를 바꾸고 살아남기 위해서 변덕을 부리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야 눈치 보지 말고 나라를 내가 지킨다 생각하고 산업계를 지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논쟁이 오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산업계, 우리 민생을 우리가 지킨다 하는 마음으로 버텨 나가고 혼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꼭 명심해서 저희가 산업계는 꼭 지켜 내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아까도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사과하라, 사퇴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사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퇴해 버리면 우리 산업계가 무너집니다. 지금 이 질서를 지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탱해 오는 겁니다. 그게 국가가 버티는 힘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럴 때일수록……

탄핵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자위에서는, 특히 거기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지금 현재 국가의 기간산업을 지켜 주고 에너지를 보강해 주고 수출입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민생을, 중소벤처기업 장관님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신경을 써서 살피고 지원해 주고 그래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왕고래 사업은 시추를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내일부터 실질적인 시추가 들어갑니다.

○**박상웅 위원** 예산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은 방법이 없으면 자체 예산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생빛을 내서라도 진행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시고, 부족한 돈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예산 지원을 받더라도 혼들리지 말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저희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상웅 위원** 이거는 정권 안보와 아무 관계없습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여러분들의 굳센 의지로 중립을 지키고 누가 뭐라고 계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을 끌어넣더라도 거기 휘말리지 말고 할 일을 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장관님들에게 질의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답변하시는 태도나 특히 중기부장관님 본인이 그날 책임이 없었다는 얘기를 한참 변명 조로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당시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오고 군인과 경찰에 둘러싸여 있던 국회 안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떨었던 우리 국회의 분노를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여당 위원님들은 농담으로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반국가세력으로 척결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김원이 위원** 처단, 처단.

○**김한규 위원** 처단이 될 수 있던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한규 위원** 긴급현안보고 자료 왜 준비하셨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준비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한.....

○**김한규 위원** 현 상황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계엄 이후에 지금 산업 상황이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가 산중위에 지금 상황 설명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대책.....

○**김한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여기 쓰여 있어요. 이 문서 전체에 계엄이나 탄핵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한규 위원 직접 다 보셨어요? 만들 때 검토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한규 위원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 못 하니까 답변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해답과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대책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시간으로 1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후에 첫 기자회견을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한규 위원 질문들이 하도 많았는데 주요 정상들 차례로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상외교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물평까지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나더 맨(another man)이라고 하면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본인이 잘 지냈고 자기밖에 그렇게 할 수 있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없었습니다.

○김한규 위원 다른…… 죄송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에서 볼 때 중요성이 낮을 수도 있지만 저는 최근의 상황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패싱이라는 게 탄핵소추 이후에 실질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시겠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바이든 정부하고는 무역정책에서 많이 다를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장관님께서 최근에 미국 오클라호마 주지사를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한국에 왜 왔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오클라호마 주지사로서 업무에 충실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최근에 오는 주지사들이 대부분 그런 목적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분들하고 만난다고 해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무역정책은 아닌데 그분이 미국 주지사협회 부회장이기 때문에……

○김한규 위원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 우리나라 지자체장을 만나면 우리나라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법규나 아니면 지금 우리 IRA 걱정하는 부분은 연방정부의 정책이 바뀌어도 주정부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김한규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는 만나시는 미팅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조금 더 호의적인 해당 주의 정책을 만들어 달라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FTA 재개정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저희가 전략적으로……

○**김한규 위원**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과 협상에서는 이런 관세만이 아니라 양국 간에 관련된 모든 혜안들을 좀 한꺼번에 놓고 건건이 보면 우리가 불리한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미국이 우리 협조를 요구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했을 때 선박 건조 관련해서 협조를 요구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패키지들로 논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가 사고 상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돼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국가가 무엇을 믿고 우리나라랑 그렇게 장래회를 가지는 아니면 장기적인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도 총리보다는 손정의 회장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김한규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손정의 회장처럼 아니면 중국의 틱톡 CEO처럼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사람 없잖아요, 아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한규 위원** 아니, 제 질문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인을 정확하게 말은 못 하니까 답변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 주변에 상무장관 내정자나 USTR 내정자 이런 분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죄송합니다.

지금은 결국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상황이 신속하게 해결될 거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탄핵심판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재발 방지, 비상계엄 같은 건 다시는 안 일어날 거다, 일어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무위원인 내가 적극적으로 온몸을 던져서 막을 수 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지금 대한민국 분위기가 이렇다 이런 얘기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협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니다, 지금 협상을 하면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되든 혹시 대통령선거를 하면 누가 당선되든 우리가 정부에서 승인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확신을 주기 전에 그러면 국내에서 먼저 우리가 대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 그리고 여러 정당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아주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은 전혀 없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그냥 산업부장관이 열심히 하겠다고 미국 기업들 만난다고 해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

○위원장 이철규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관님 뭐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소위 말하는 386세대인데요.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제 눈앞에서 분신자살하는 학우들 보면서 학교를 졸업했던 세대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절대 동의하지 않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고 이미 저희는 모든 내각이 총사퇴 의지를 밝혔고.

그렇지만 지금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중기부장관도 얘기를 못 하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에 동조를 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산업부장관님 수고하셨고요, 김한규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환.....

○김한규 위원 진짜, 장관님들이 뭐라고 하든 재판에 영향을 하나도 안 미쳐요! 장관님의 의견이 뭐라고 사법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본인의 소신을 밝히지 못한 핑계 대지 마세요.

○박지혜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오영주 장관님, 모두에 ‘참담하다. 송구하다. 비상국무회의 갔더니 이미 끝나서 총리한테 반대했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 얘기를 12·3 불법·위헌 계엄 사태 이후에 처음 들습니다. 다른 데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신 적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받고 있는 여러 수사 협조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이나 이런 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언론이니까요.

○김성환 위원 매우 유감입니다.

한 가지 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할 때 부서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님.

○김성환 위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할 때에는 혹시 부서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그때 심의 의결과 관련돼 있는 항상 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고요.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부서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부서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해제할 때는 혹시 사인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사인 없이 의결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 의결 절차를 거치신 겁니다.

○김성환 위원 시작할 때는 지난번 현안질의 때 총리가 그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저희 위원들이 여러모로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위헌·불법 계엄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인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국무회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엄……

○김성환 위원 12월 3일 날 윤석열 씨가했던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한규 위원님……

○김성환 위원 짧게 얘기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기회를 좀 주시면……

○김성환 위원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만 얘기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이 부분이 법적인 절차가 있는 법치주의 나라에서 저희가……

○김성환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목숨을 걸고 해제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긴 했지만 국회가 이것을 의결로 막았습니다.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위 국현문란이 있었습니다. 내란죄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나중에 판결은 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내란 혐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내란에 동조하느냐 여부입니다. 최근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은 정당했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는 계엄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김성환 위원 대통령도 12일 날 담화와 그 이후에도 계엄은 정당했다고 얘기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는 계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위원 임명받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는 계엄을 있어서는 안 되었을 사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 태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상식이 있는 공직자라면 조금만 법률을 따져 보면 그것은 위헌이고 불법이고 내란이고 그러하므로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투철하면 그 투철함이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보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박지혜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12월 4일 날 1시에 비상간부회의 하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갔더니 비상계엄 선포더라, 그와 관련해서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입장 표명하신 적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비상간부회의에서도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요. 지금

이러한 비상의 사태에 있어서 정부로서……

○**김성환 위원** 총리한테는 반대한다고 하셨다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상간부회의는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중기부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고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비상계엄이 옳고 그르다는 본인의 입장 표명을 안 하셨다 이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성환 위원** 아까 김한규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늘 중기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첫 장에 ‘소상공인들의 불안심리 확대 및 소비심리 위축, 매출액 감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위헌·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비상계엄 사태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런 표현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못 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실 자체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 정책 대상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고민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보고서에 대한 답으로 그다음 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윤석열 씨의 위헌·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중기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12월 2일 날 충청남도 공주에 중기부장관하고 윤석열 씨가 같이 가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이거는……

○**김성환 위원** 여기에서 ‘백종원 1000명을 만들겠다. 나를 믿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리고 그다음 날 계엄선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12월 5일 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대책 발표하신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범부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12월 2일 날 대통령 방문하고 그 일환으로 발표하려고 했던 거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발표해 놓고 여기다 지금 대책이라고 올려놓으신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성환 위원 맞지 않습니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소상공인.....

○ 김성환 위원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실제로 앞 페이지에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으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리이러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셔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런데 있는 대책 발표해놓고 마치 그것이 비상계엄에 대한 대책인 것처럼 포장지만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장관님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곱씹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관님의 태도는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상 불법 계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란죄도 법률의 판단을 받아 봐야 알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이철규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관님 간략히 답변하십시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중기부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그리고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대책들은 사실 현장에서 저희가 발굴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사실 소비 진작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빨리 1월 달까지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해서 현장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환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책에는 일종의 온누리상품권을 1월 달에 조기에 얼마만큼 집행을 하겠단지 지역화폐를 추가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지 이런 대책이 추가로 들어가야지, 12월 3일 날 있었고 12월 5일 날 으레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발표를 해 놓고 나서 이걸 대책이라고 해 놓는 건 안 맞다 이런 겁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산의 조기 집행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위원님 지적과 당부사항 명심하셔 가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언주 위원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위원님.

○**이언주 위원**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날 12·3 사태 때 당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아까 현안보고에서 주로 경제 현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지만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긴 이유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12·3 사태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현안질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왜 12·3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그것을 이해 못 하십니까? 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물론입니다.

○**이언주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언주 위원** 바로 그 사태는 현정질서를 문란시킨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사실은 일차적인 배리어(barrier)가 어디에 있었어야 되느냐? 국무회의에서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있었으면 아마……

○**이언주 위원** 그렇지요? 국무회의에서 고성이 오가더라도 거기서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막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난리가 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물론 국회가 다행히 막았지만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 분야만 열심히 하는 전문가·기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헌법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언주 위원** 마치 ‘이것은 수사 중이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서 나는 그것의 당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헌법상의 요건을 모르십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즉시 통지를 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발동되는 경우에는 즉시 국회에……

○**이언주 위원** 절차적인 거고요. 실질적인 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있었습니까, 그날! 누가 봐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건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나서서 바짓가랑이로 불잡고 말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을, 한 사람을 못 막아서 이 난리가 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날 국회에 난입한 군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들어와야 되고, 들어와서 난입하라고 하고 체포하라고 하니까 문을 깨고 들어오긴 했는데 차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군인들과 그 사령관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인생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중죄를 지고 내란죄 공범으로 전부 다 큰 중형벌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이 군대가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게! 이거를 여러분이 못 막

으신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못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누가 얘기하셨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위원들이 달려왔냐. 그래요, 저도 그날 씻고 있었어요. 자려고 씻고 있었는데 그거 보고는 달려왔습니다. 100 킬로 넘게 밟아라. 달려와서, 다 막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담을 넘고 저는 몸싸움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목숨 걸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못 막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것 때문이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데 이 문제는 여러분의 단순한 내란 공범 유무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아니에요.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기관의 일부로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었던 여러분이 뚫린 것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체코 원전 관련해서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고, 저는 뭐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내란극복특위에서도 우리 경제와 산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서로 어떤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우리는 뒷받침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다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고 그것을 바깥에 가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감사합니다.

○**이언주 위원** 다만 저는 대왕고래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의한 바가 없고요, 국회에서.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진행해 오던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불리 진행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쟁기겠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그냥 막 넘어간 게 있어요. 기업들 임시투자세액공제 얘기하고 있다가 진행 못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이언주 위원** 그거 만약에 안 쟁기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IR이 문제가 돼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이언주 위원** 그래서 투자의사 결정이 다시 재고가 되고 2025년도에 투자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조 원의 규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이것을 꼭 쟁겨서, 이거는 뭐 기재부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산업부에서 쟁기셔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다음에 석유화학 구조조정 시급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이언주 위원** 그런데 그 구조조정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태로? 지금 난리 났어요, 그렇지요? 산자부장관님, 꼭 쟁겨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조만간에 그 대책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언주 위원** 그리고 장관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 장관님이 안 가셨잖아요, 국무회의에 안 가셨는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못 갔습니다.
- 이언주 위원** 가시기 전에 연락은 받으셨잖아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받았습니다.
- 이언주 위원** 누구한테, 언제 받으셨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제가 급하게 택시 타고 가다가 중간에.....
- 이언주 위원** 혹시 총리한테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날 미리 연락받으신 적 있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전혀 없습니다.
- 이언주 위원** 8시나 9시 이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전혀 없었고요. 대통령실에서 연락받았을 때도 무슨 사안인지 모르고 저희는 봄늦게 소집이 돼서, 저희는 외국이랑 이렇게 협의를 할 때는 봄늦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외국이랑 무슨 뭐 이런 게 터졌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장관님이 안 가셨지만 장관님도 나중에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TV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 이언주 위원** 그러면 뭔가 빨버둥 치셨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이시잖아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다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철규**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수 위원** 산업부장관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 박형수 위원**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외신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했습니다.
- 박형수 위원** 세계 외신들 앞에서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안보 정책, 부처 간 공조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지금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마 이 간담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간담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부도 혹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저희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필요하면 외신 간담회 해서 우리 산업정책 관련해 가지고 좀 안정적인 메시지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비상계엄 해제된 이후인 12월 4일에도 우리 정부가 각국 재무장관들하고 주요 국제기구 총재 또 글로벌 신평사 이런 곳에 서한을 발송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박형수 위원** 산업부도 필요하다면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 명의로 지금 많이 나가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경제·금융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TF를 5개를 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박형수 위원** 그중에서 산업부는 지금 무역·통상 분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무역·통상 분야 점검해 본 결과 혹시 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최대한 지금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해 오던 작업들은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주요 국가들이랑 협정 체결하는 것들이라든가 협정 시작하는 것들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대미 통상의 불확실성이 커서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지금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 경제부처들은 각자의 원래 스케줄대로 쭉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장관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참 이게 불행하게도 지난번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할 때도 그때도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데 지금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이 시기에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또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각별히 좀 유의를 하셔서 장관님께서 필요한 조치들을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지금 산업부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계획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박형수 위원** 그 계획들 중에서 혹시 이 비상계엄이나 탄핵 때문에 차질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사실은 정상외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정상외교가 되면 그 후속 작업으로 각 관련돼 있는 부처들이랑 본격적으로 신뢰를 쌓고 파트너십 구축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조금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동안 우리 산업계가 미국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면서 구축했던,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던 그 기반으로 해서 각 관련돼 있는 부처들하고, 에너지부나 상무부, USTR하고는 지금 새로 들어오는 팀들하고 계속 신뢰 구축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까 긴급 현안보고 문건에 보니까 주한 외국상의하고 간담회 개최를 했고 또 주한 미국상의하고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산업부가

설명한 부분과 또 그쪽에서 어떤 요청하는 부분이 혹시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산업계는 이미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업들의 지금 상황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글로벌하게도 외국에서 한국의 산업계가 흔들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외국상의, 아까 제가 오기 직전에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했는데 상의 대표들이 ‘본인들이 도와주겠다, 뭐가 필요하냐’,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은 자기들도 빨리 나서서 지금 본국이나 이런데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투자행사 같은 걸 하는데 일부 CEO들은 지금 여전히 TV에 우리 계엄 당시의 상황이 나오는 걸 보고 ‘한국 가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있어서 빨리 이런 부분들을 불식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까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체코 원전 수출 계약 관련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상계엄이나 탄핵으로 인해서 여기에 혹시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래 진행되어야 될 게 어떤 부분이었는데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혀 없고 지금 실무 차원에서도 그렇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쪽에서는 우리가 탈원전 같은 걸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정책이 큰 스윙이 또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좀 하는 게 있어서, 아까 이언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정말 우리 산중위 차원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같이 한번 의원외교를 좀 해 주시면 이번에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여야 또 국회의장님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요 글로벌 국가들, 몇 개국인지 아직 완전히 특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때 파견을 해서 여야 위원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또 안심도 시키고 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EU에 갔을 때 예를 들어 체코를 들른다든지 또는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중위 차원에서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위원들이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장관님, 지난번에 우리 증액한 예산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 예산 3000억 원이었고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도 2520억 원이었고 또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하는 예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쨌든 간에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중기부의 대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사실 증액이 논의되었던 예산들 중에서 중기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5조 9000억에 해당하는 소상

공인 예산이라든지 이걸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보면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메시지를 소상공인한테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셔요 가능한 조속히 저희가 지금 공고를 하려고, 다음 주에 예산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필요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해야 되나, 사실 증액이라고 하는 것이 추경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 속에 먼저 재정 집행 자체를 조속히 해 보는 것으로 저희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지금 체코 측에서 국내 계엄과 탄핵 이후에 한국의 에너지정책 또 산업정책이 좀 변동될까 봐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감지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쪽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국내 사정이 있고 또 지금 프랑스 원전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한테 낙찰한 회사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많이 부추기고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래서 이런 걸 명확히……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이 우리 국회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시잖아요. 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개별 위원님들의 생각과 달리 에너지정책이라든가 산업정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변동 없이 뒷받침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극 알리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 측과 협조해서 그런 의원외교 활동이 도움된다면 추진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걸 여야 위원님들과 협의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저희 산업부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할까요, 그러면. 기왕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면요 민주당 위원님들이 국정감사라든가 여러 현안질의 과정에서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서 반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전개돼서 그걸 확인하려고 정부 측에 자료 요청도 해 보고 설명도 요청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 안보니 무슨 영업 기밀이니 해서 자료 하나도 안 줬잖아요.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주당 위원의 질의의 핵심 내용은 거의 대부분 ‘자료 좀 다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다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제대로 평가해 볼게. 그래서 합당하면 도와줄게.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문제 제기였던 거예요. 저는 진짜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철규** 질의 시간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시간이니까……

○**김원이 위원** 그래서 저는 산업부장관님이 지금이라도 이 체코 원전 관련한 여러 민주당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들, 요청했던 자료들에 응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적극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이것은 정말 국익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판단이 서면

그 누구보다도 발 벗고 도울게요. 다만 그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민주당의 상황이잖아요. 그건 이해하시잖아요, 장관님?

위원장님, 하여간 논의하는 건 좋은데요……

○위원장 이철규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 이해가 됐으니까요.

장관님들하고 그다음에 배석자들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 산자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에 의해서 벌어진 비상계엄, 위헌·위법한 행동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말씀드린 것처럼……

○송재봉 위원 여전히 같은 입장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계엄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송재봉 위원 12월 4일 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성격이, 형식은 갖추지 못했다 이런 주장도 하지만 국무회의에 참석은 안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못 했습니다.

○송재봉 위원 가는 중에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송재봉 위원 그런데 그 직후에 12월 4일 00시 10분, 회의를 여셨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송재봉 위원 여기에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주요 간부들이 다 참석을 하셨던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비상계엄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하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다들 계엄 상황에 대해서……

○송재봉 위원 아니, 장관님께서 ‘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 잘……

○송재봉 위원 아니, 잘못된 것이라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다들 저희 1급들……

○송재봉 위원 그런데 정작 주요한 간부들 모아 놓고 ‘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 안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니요, 저희 1급들이 모여서 지금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고……

○송재봉 위원 이때는 비상계엄 상황이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재봉 위원** 그런데 회의를 해서……

그러면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서 회의하셨나요? 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신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는 에너지 수급 상황부터, 저희 사무에 관한 비상……

○**송재봉 위원** 그래서 이 계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는 그 소식의 진위를 일단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송재봉 위원** 진위를 파악할 것 뭐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다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래서 1급들 다 소집을 해서 저희가 일단 우리 국내 산업 상황 파악하고……

○**송재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하여튼 그런 정확한 표현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니, 저희가 그 안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재봉 위원**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12월 12일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 들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송재봉 위원** 조금 전에 김정호 위원께서도 확인을 하셨는데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90% 깎아 버렸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했다, 이것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셨지요? 옳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송재봉 위원** 틀린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건 틀린 것……

○**송재봉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그래서 보도 해명자료도 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어떻게 내셨어요, 보도 해명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기자들한테 바로 해명을 했었습니다. 따로 공식적으로 해명자료를 내지는 못하고요.

○**송재봉 위원** 그 당시의 해명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니요, 해명자료를 공식적으로 내지는 못했고요 우리 기자단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송재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국감 때도 그렇고 체코 원전 문제, 대왕고래 지적할 때마다 즉각 즉각 사실관계 틀리다고 그렇게 성명서 내고 보도자료를 내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명확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지 않으시나요?

(이철규 위원장, 박성민 간사와 사회교대)

잘못된 거지요? 바로 내세요, 지금이라도. 틀린 것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미 여러 언론에서 그게 틀렸다는 게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아니, 공식 보도자료를 내세요.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해야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시점에서 그 보도 해명자료가 나갈 수 있는 건지는 저희 기자단들하고 한번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 관련돼서, 비상계엄의 이유 하나가 예산 확보 안 해 줘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것 동의하시나요, 대왕고래 예산 확보 안 해 줘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게 언급은 됐었지만 그것 때문에……

○**송재봉 위원** 그것도 하나의 이유잖아요.

지난 3일, 비상계엄 발표 당일에……

박성택 산업부1차관님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송재봉 위원** 기자간담회 그날 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했습니다.

○**송재봉 위원** ‘용산 대통령실에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안다’. 계엄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전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필요한 조치가 계엄이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건 기자가, 저희가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 중의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뭘 하고 있느냐 물어서 제가 상식적인 답변을 한 겁니다.

○**송재봉 위원** 엄중하게 바라보고 필요한 조치 한다고 하셨잖아요. 엄중한 조치를 한 게 비상계엄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당시에 그 전날 국무위원들도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입장 발표도 있었고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송재봉 위원** 제가 볼 때 이 워딩으로 보면 차관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송재봉 위원** 그러니까 나도 믿고 싶지는 않은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송재봉 위원** 중기부장관님, 12월 2일 날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이 대통령 행사에 같이 참여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이때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했는데 그 직전에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만한 정책이 바로 시행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정확한 문구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송재봉 위원** 제가 보니까 피부로 느낄 만한 정책을 바로 시행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피부로 느낄 만한 정책 시행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이 행동을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 자리에 같이 동석하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 당시 민토에서는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송재봉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의 매출이 지금 절반 이상 줄었고, 앞의 보고에도 보니까 88.4%가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소공연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러니까 단체 예약도 다 취소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지금 매출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재봉 위원** 다행히 탄핵이 돼서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안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러면 중기부장관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계엄선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준에 발표한 것 말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소상공인들이 지금 특히 어려움을, 예전에도 많이 겪으셨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기치 못한 사태에 있는데 지금……

○**송재봉 위원** 그러니까 민생 회복 대책을 기존의 것 말고 내놔야 되잖아요. 지금 내놓은 것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빨리 예산, 재정을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재봉 위원** 포브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가는 대한민국 5100만 국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분할해서 지불하게 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끝까지 민생을 잘 챙겨 보고 일단 예산을 지금 빨리 푸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준비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것 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같이하면서 노력을 지금 하고요, 의견들을 좀 들어 보고 재정 당국과 함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언 위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질의하면서 한 번도 소리 지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 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곽상언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덕근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일단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사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그다음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는 참석을 못 했고요.

○**곽상언 위원** 선포는 못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해제를 하는 회의는 참석했습니다.

○**곽상언 위원** 해제를 하는 회의는 참석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곽상언 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12월 3일 상황을 좀 여쭤볼게요. 오후 상황을 보니까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몇 시에 종결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종결된 시간이 한 5시, 6시쯤 됐던……

○**곽상언 위원** 오후 5시쯤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5시, 6시쯤 됐던 것 같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 후에 뭐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다음 퇴근을 했습니다.

○**곽상언 위원** 퇴근, 맥이 어디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도곡동입니다.

○**곽상언 위원** 도곡동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곽상언 위원** 그러면 아트센터에서 얼마 걸리지 않겠네요. 길어야 30분 걸리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곽상언 위원** 그때 당시 정해영 주무관이 운전 수행한 것 맞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맞습니다.

○**곽상언 위원** 맞지요? 그리고 정해영 주무관 퇴근했어요, 그 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곽상언 위원** 좋아요.

그 옆에 계신 오영주 장관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저녁 9시 40분경에 대통령

께서 찾으신다는 연락을 받고 용산 대통령실로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 과상언 위원 그러면 안 장관님은 연락 못 받았어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는 9시 한 50분 좀 넘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 과상언 위원 50분쯤 받았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54분인가 정확하게……

○ 과상언 위원 54분쯤 받았어요. 그러면 54분쯤 받고 왜 안 가셨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안 간 게 아니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좀 급하게 다급하게……

○ 과상언 위원 그러면 54분쯤 받고 몇 시에 출발했어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바로 출발을 했고요.

○ 과상언 위원 바로 출발하셨어요? 그러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런데 택시를 불렀기 때문에 택시 부르는 시간이 있었고……

○ 과상언 위원 수행하고 있는 정해영 주무관이 운전하신 게 아니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니고……

○ 과상언 위원 택시를 불렀어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왜냐하면 거기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 과상언 위원 평소에 택시를 사용하시나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대통령실을 가야 되면 원래는 제 공무수행 차가 와야 되는데……

○ 과상언 위원 그러니까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왔다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 과상언 위원 평소에 택시를 타고 국무회의에 갈 수가 있나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무회의라는 걸 몰랐습니다. 대통령실 직원이……

○ 과상언 위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9시 54분에 뭐라고 연락받았습니까? 뭐라고 연락 받았길래 택시를 타고 갔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빨리 올 수 있느냐라고 연락을 해서, 제가 무슨 일인지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 과상언 위원 제가 대통령실에 택시 타고 갔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 봤어요, 지금까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 시간에 저희가 소집이 된 건 처음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하고 시간이 반대인 데 무슨 급한 회의가 있어서……

○ 과상언 위원 아니, 아무리 급한 회의가 있든지 없든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도 처음입니다.

○ 과상언 위원 택시를 타고 지금까지 국무회의 출석하신 적 있으세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 시간에 소집이 된……

○ 과상언 위원 지금까지 택시를 타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한 번도 없습니다.

○곽상언 위원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없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런데 택시 탔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날만 택시를 타고 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 시간에 소집된 게 처음입니다.

○곽상언 위원 또 여쭤볼게요.

아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택시 몇 시쯤 탔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한 10시 좀 넘어서 택시가 왔던 것으로……

○곽상언 위원 10시 넘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곽상언 위원 그러면 평소에 택시 어플 깔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때 제가 부른 게 카카오택시를 불렀습니다.

○곽상언 위원 좋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28분 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3시에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이 실시가 됩니다. 그렇지요? 군대 동원되는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곽상언 위원 그러면 이 선포될 때 28분에는 어디 계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택시 안에서……

○곽상언 위원 택시 안에 계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가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곽상언 위원 아니, 어디 계셨냐고요? 짧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택시 안에 있었습니다.

○곽상언 위원 택시 안에서 라디오로 들으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라디오로 확인을 했습니다.

○곽상언 위원 라디오 들으셨으면 용산으로 가셔야지 왜 안 갔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 연락이 문자가 왔는데, 그 직원이……

○곽상언 위원 오지 말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종료됐습니다. 귀가하십시오’라는 문자가 와서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곽상언 위원 문자를 받고 별달리 확인도 안 하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데 집에 가도 되는 겁니까, 택시 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녁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소집이 돼서 갑자기 가다가 중간에 돌아가라 그래서……

○곽상언 위원 조금 전에는 라디오를 듣고 비상계엄인지 알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곽상언 위원 그런데 비상계엄인지 알았는데 문자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요?

○송재봉 위원 아니, 집으로 안 갔다고 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 송재봉 위원 회의했다 그랬잖아요, 회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니요. 집에 오는 중에 제가 차관들하고 연락을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1급 회의를 소집해서 저희가 12시에 1급 회의를 한 겁니다.

○ 곽상언 위원 자, 그래서 제가 하나씩 여쭤보는 거예요.

그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뭐 하셨습니까? 누구하고 통화했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우리 차관들하고……

○ 곽상언 위원 차관들하고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통화를 하고……

○ 곽상언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1시간 후에 1급 이상 간부회의 소집해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 곽상언 위원 그렇지요? 어디서 소집하셨어요? 택시 안에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니요, 집에 와서.

○ 곽상언 위원 전화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 곽상언 위원 집까지 얼마나 걸리던가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집에 돌아온 시간은 그러면 한 10시 45분이나 그쯤 되겠네요.

○ 곽상언 위원 10시 45분은 계엄선포로부터 불과 20분 후예요.

안건이 뭘까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까 말씀드린 비상계엄이 터지면 저희는 일단 에너지 수급이나 비상 그런 것들……

○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안건이 뭐냐고. 정식 안건 통지하셨어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식 안건은 없고요.

○ 곽상언 위원 통지 안 하셨고.

그러면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하기로 한 것 맞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 곽상언 위원 그러면 회의했으면 회의록 작성했어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회의록이……

○ 곽상언 위원 다음까지 회의록 제출하세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회의록은 작성은 못 했습니다.

○ 곽상언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아니, 택시에서 비상계엄 사실을 알고 집에 가는 게 어디 있으며 전화로 회의 소집하고 왜 회의록 작성 안 합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비상계엄 상황에서 저희가 모여 앉아 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할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 곽상언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전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회의하신다고 한 그다음에 1시간이 못 돼서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합니다, 1시에. 알고 계시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회의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 과상언 위원 그 후에 비상계엄 선포한 대통령 윤석열이 뭐라고 하냐면 ‘계엄 해제를 위해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 국무위원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봤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 과상언 위원 봤으면 바로 가야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는 그때……

○ 과상언 위원 가셨어요? 바로 갔어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대통령실에 제일 먼저 도착한……

○ 과상언 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대통령실에……

○ 과상언 위원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때 끝나고……

○ 과상언 위원 어디서 끝나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청사에서, 저희가 일단 소집 해제를 해서……

○ 과상언 위원 청사에서 1시 55분에 나오세요. 1시 55분에 나와서 몇 시 도착하셨어요, 용산에? 그때는 뭐 타고 갔어요? 그때 택시 타고 갔어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니요, 그때는 수행하는 차가 계속 데리고 움직였기 때문에……

○ 과상언 위원 조금만 더 물어보게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더 주세요.

그때 택시도 안 타고 그 주무관이 운전했지요, 그렇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 과상언 위원 비상계엄 해제가 그때로부터 3시간 반 후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차 타고 몇 시에 용산 도착했어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대통령실에 도착한 게 2시 50분경입니다.

○ 과상언 위원 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2시 50분에……

○ 과상언 위원 담화 보고서 바로 가셔야지 왜 지체하셨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때는 국무조정실장이 문자로 공식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는데 2시 6분에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 과상언 위원 좋아요. 국무위원들이 다 왔는데도 그러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때 바로 오지를 못했습니다.

○ 과상언 위원 비상계엄 해제 안 한 거예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때 바로 못 오고요. 제가 도착……

○ 과상언 위원 아니, 장관님이 도착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 과상언 위원 비상계엄 해제가 안 됐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래서……

○ 과상언 위원 그때 몇 명 왔어요? 몇 명 왔어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왔을 때 거의 제일, 상당히 일찍 도착을 한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총리께서 빨리 불러라, 소집을 해라고 해 가지고 국무조정실장이 자정……

○ 과상언 위원 오실 때까지 몇 명 왔습니까, 몇 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 과상언 위원 제가 정족수가 되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부총리하고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해제 회의를 못 왔지만 대부분의 다른 장관들은 나중에는 다 왔습니다.

○ 과상언 위원 다 왔지요. 그렇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거의 다 왔습니다.

○ 과상언 위원 다 왔는데 4시 반에 한 것 아닙니까, 해제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러니까 오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니까요.

○ 과상언 위원 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오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 과상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장관님이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도착하셨는데 대통령이 안 한 것 아닙니까, 해제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해제를 한다 그래 가지고 제가……

○ 과상언 위원 거의 다 와 있었다면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니요, 제가 거의 제일 먼저……

○ 과상언 위원 그때 오영주 장관님 와 있었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제일 먼저 왔었……

○ 과상언 위원 오영주 장관님, 그때 몇 사람 있었습니까, 국무회의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오는 시간들이…… 안덕근 장관님이 저보다 더 먼저 가셨고 저는 3시 한 10분이나 20분 그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의실에 모여서 좀 기다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계속 오셔 가지고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계속 왔었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와서……

○ 과상언 위원 아니, 계속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해제 결의한 게 1시인데 해제를 4시 반에 해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때 의결……

○ 과상언 위원 그러면 장관들은 해제됐으면 바로바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안 장관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사에서 회의를 하고 계셨고 1시간 이후에야 출발하셨던 말이에요. 그리고 2시간 이후에 해제된다고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말씀드렸지만 2시 6분에 국무조정실장이 공식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가서 거의 제일 먼저 도착을 했었고. 그리고 계속

국무위원들이 모이는데 국무회의 안건을 그 당시에는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의결번호 같은 것 확인하고 하면서 안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저희도 보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나 했었는데 그때 의장님께서 기다리라고, 이것 안건 만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곽상언 위원 제가 지금 의심하는 건 뭐냐면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에 안 장관님께서 하신 행동 때문에 그래요. 택시를 타고 가는 것도 이상하고 택시에서 회의 소집하는 것도 이상하고 회의를 소집한 다음에도 회의록도 만들지 않았다고 하시고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는데도 용산에 늦게 가시고 용산에서도 국무위원들이 모였는데도 해제를 안 했단 얘기 아닙니까? 이게 모두 다 이상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제 말에 좀 이상한 것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 중에 더 추가로 확인할……

○곽상언 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제 말에 지금 이상한 것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곽상언 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에 좀 이상한 것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곽상언 위원 지금 사실만을 놓고 말씀드리는 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제가 다……

○곽상언 위원 지금 국무위원 하시면서 생애 처음으로 택시 타고 가시고, 국무위원 하시면서 생애 처음으로 회의록 작성 안 하시고, 국무위원 하시면서 용산에서 부르는데 늦게 가시고,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불렀는데도 국무위원이 모여 있는데도 정족수가 갖춰져 있는데도 비상계엄 해제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몇 번의 법 위반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러면 안 장관님께서 한 번이라도 빨리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총리께서……

○곽상언 위원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질문에 대한 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총리께서도 당시에 빨리 회의를 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 그 당시 불참한 사람들 빨리 오라고 계속 종용을 하셨고요, 참석을. 그래서 모이는 대로 안건이 만들어지는 그 즉시 저희가 한 게 이 시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저는 지금 안 장관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안 장관님께서 그 기간 동안 하신 적 있으시냐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는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소집됐을 때 사실은 제일 먼저 2시 50분에 도착을 해서, 2시에 소집을 받고 제일 먼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곽상언 위원 다음에 제가 기회가 닿으면 오늘 질의한 사항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준비를 좀 다시 해 오시고 기억을 복기해 보시고, 혹시 속기록이라도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희 위원 중기부 오영주 장관님께 물을게요.

지금 12월 말은 소상공인·자영업에게 어떤 달이라고 생각하세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특수가 많은 날들입니다.

○ 오세희 위원 그렇지요, 특수. 12월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은 12월을 벌어서 1년의 비수기를 메꾸는 달입니다. 연말 특수가 있는 건데 성수기를 망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번의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특히 여러 외식업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세희 위원 이번의 사태가 뭐 어떤 거지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세희 위원 이번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때문에 어저께도 간담회를 했는데 손님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은 많고 빚은 많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요즘 '안녕하세요?'를 묻기가 힘들다는 그런 때입니다.

12월 2일 날, 탄핵 전날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를 하셨지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 오세희 위원 노쇼 방지책을 하시겠다 그랬지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 오세희 위원 그런데 마련하셨어요, 노쇼 방지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저희가 일단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가지고 노쇼와 관련돼 있는 절차들을 어떻게 법부처적으로 할 건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오세희 위원 노쇼 방지책에 대해서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하는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일단……

○ 오세희 위원 더군다나 요즘들은 인터넷에 그런 걸로 많이 자영업자들을, 악성 리뷰도 그렇고 힘든데 그런 것 대책을 꼭, 저도 그 제도를 법안을 발의할 거지만 빨리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공정위하고 저희가, 차관이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 오세희 위원 이 시국에 자영업자·소상공인한테 가장 우선 지원해야 될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힘들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이 탄핵 사태 전에도, 비상계엄 전에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금융상의 부담이었습니다.

○ 오세희 위원 예, 그렇지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희 위원 지금 어려움이 많지만 가장 어려운 게 채무에 관한 거지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렇지요, 금융에 관한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오세희 위원** 그래서 12월 5일 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오세희 위원** 어쨌든 저리 대출자금 추가 공급하고 전환보증, 거치형 대환대출 신설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정책자금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러나 주로 저금리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 방식에서 근본적인 상환 부담을 해소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부채가 계속 가중되는 것은 방지가 이것만으로는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 팬데믹, 2019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7% 증가했지요? 110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다중채무자가 106만 약간 넘고, 그래서 지금 172만 명 정도, 62%가 증가했지요. 그래서 금액은 지금 약 58.2%, 그렇지요? 682조 8600억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오세희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95.1%인데 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어제께는 5000만 원을 받는데 마이너스대출인데 마이너스대출을 다 쓰지 않아도 이자가 나온다 이걸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하다고 생각합니까? 참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새출발기금이라고 정부에서 지금 많이 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2.51조인데 코로나 기간에 350조가 대출이 증가됐는데 1.76조 감면은 0.5로 미미하지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많지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어쨌든 섬세하게 만들어야 된다. 금융위원회하고 이 부분은, 코로나에 정말 국가에 협조를 해서 방역대책에 협조를 했는데 그게 개인 빚으로 온 거잖아요. 국가가 빚을 져야 되는데 개인이 대출을 받아서, 싸게 저리로 주마 그랬는데 코로나 끝나니까 5%, 7%대가 돼서 이자가 빚이 된 상태거든요. 이 부분 채무조정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융 채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섬세하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례별로 파악해서 저리 이자, 이자 감면, 대출 장기연장, 대출원금 감면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정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대출 부채의 문제가 소상공인들, 영세 소상공인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환 연장, 전환보증한 것은 정부의 정책자금에만 한정돼 있었는데 많은 부분들이 금융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와 함께 이 부분의 상환 연장을 논의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여러 채무조정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오세희 위원** 보완을 좀 해야 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세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가뜩이나 내수 부진으로 너무도 힘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 정국에 있어서 가장 피해 보는 건 소상공인·자영업이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섬세하게 피해를 얼마나 봤는지, 어떻게 봤는지 그 부분을 빛으로만 메꿀 게 아니라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기부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소상공인·자영업 현장을 생각해서 전통시장만 죽 돌 게 아니라, 맨날 시장만 갈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을 설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 정국에 손해 본 소상공인·자영업, 12월 성수기를 망친 소상공인은 어떻게 해 줄 건가. 이것은 산업부도 고민하고 중기부도 고민해서 그 부분은 꼭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위원님, 지금 제가 현황을 먼저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지금 예산으로 확보된 부분들을 먼저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현장을 더 면밀히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꼭 섬세하게 좀 챙기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일준 위원** 산업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핵심 에너지정책 중의 하나인 대왕고래 이 프로젝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시추선 도착해서 아마 내일부터……

○**서일준 위원** 시추선 도착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아마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추작업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서일준 위원** 내일부터 시추작업 들어갑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서일준 위원** 그러면 시료 채취하는 데 얼마나, 한 두 달 정도 걸립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한 1월 말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일준 위원** 1월 말 정도 되면 시료 채취는 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서일준 위원** 시료 채취한 것 분석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한 몇 달 걸리는데요. 저희가 완전히 분석이 정밀하게 다 끝나기까지는 한 8~9월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중간 발표를 중간 정도에, 웬만큼 우리가 좀 확신이 서는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나오면 한 오륙 월 달이라도 저희가 발표를……

○**서일준 위원** 오륙 월 달에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서일준 위원** 지난 우리 산자위 예산 심사를 할 때 제가 또 산자위 예결위원이 돼서 그때 정부안이 아마 556억인가 이렇게 제출했는데 여야 합의로 그러면 50억 삭감하고 506억으로 하자 하고 그다음에 1차 시추 후에 경제성이 없으면 2차부터는 예타를 추진하자 이렇게 여야가 그냥 합의가 된 거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이게 그런데 예결위 넘어가 가지고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90%가 삭감이 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서일준 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8억 얼마 남은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사실은 취소를 해도 계약돼 있는 금액을 다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득이한 상황이 계속되면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석유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이게 석유공사에서 발표를 정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총선 전에 발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난 뒤에 아마 5월 달인가 발표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전혀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석유공사 사장이 누구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김동섭 사장입니다.

○서일준 위원 김동섭 사장님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맞습니다.

○서일준 위원 이분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이분은 아마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에너지·석유 관련 전문가라고 알려졌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이분이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걸 추진을 한다 안 한다 하겠습니까?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정말 이 대왕고래 사업은 정파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말 에너지 안보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내일이면 시추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추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우리 국민들께 정말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다음 체코 원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24조 원 규모로 해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돼서 내년 3월에 최종 계약이 예정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체코 원전을 가지고 헐값 수주다, 원천기술이 없

어서 돈은 되놈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그걸 통해서 기술을 올리고 또 우리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키워서 선순환구조로 우리 원자력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정말 대한민국 지금 위기입니다. 이럴수록 대한민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이런 부분은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도, 우리 공직자분들도 혼들림이 없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서일준 위원** 다음, 지난 트럼프 당선인께서 아마 지난 달 7일이지요, 윤석열 대통령께 전화해서 대부분이 ‘대한민국 조선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MRO도 같이 하자’ 이런 형태로 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서일준 위원** 지금 이 사태가 나고 나서는 우리 대한민국 패싱을 했다 이런 보도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과연 한미동맹이 어떻게 될까? 한미동맹이 미치는 우리 미 군함 MRO 사업은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또 선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디일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우리 정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조선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혼들림이 없다고 보고 있고 한미동맹의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미 조선 협력 평화를 조만간에 만들어서 미국 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의를 좀 해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사실은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 방위비 부분도 다시 거론이 되면 이게 MRO 분야를 현물로 지급하는 부분도 있다, 오히려 한미가 서로 원활할 수 있는 이런 분야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저희도 동감입니다.

○**서일준 위원** 이런 부분도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꼭 반드시 저희가 좋은 계기를 만들어서 우리 조선산업이 클 수 있도록 잘 쟁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중기부장관님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서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관 위원 충남 천안을의 이재관 위원입니다.

오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용적 또 절차적인 어떤 요건과 관련돼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시는데요. 보다 보니까 참 안타깝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들은 국무위원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내용적인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쳤느냐 제가 그쪽의 말씀보다도 국무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회의라고 하면 국가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가 갖춰야 될 어떤 정족수에 관련된 또 상정 안건에 대한 부분 또 부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회의장이라든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사실로서 확인된 내용을 보면 그것은 국무회의의 어떤 절차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장관님들의 답변은 ‘반대했습니다. 반대합니다. 참혹합니다’, 저는 그렇게 어떤 변명으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장관님들의 그 모습들을 전 공직자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신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너무 명확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고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 부분은 자기의 어떤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팩트에 대한 그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판단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무회의의 어떤 요건, 어느 것을 갖췄습니까? 하나 갖쳤다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의결정족수. 그런데 그것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의결정족수도 충족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장관님이 제일 마지막에 오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서 이미 의결정족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국무회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심의된, 논의되었던 그런 사안이 대통령 결재까지 갔다? 그건 이미 절차적으로, 이것은 흡결의 문제가 아니고 그 요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물었을 때 ‘그것은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라는 그 답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그 답변을 다시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좀 앞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덕근 산업부장관님, 대외무역 환경과 내수시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보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점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면서 저희가 좀 우려를 하는 것이 수출의 효과가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재관 위원 어쨌든 그 관계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제가 산자부의 현재 현안 내용과 그다음에 중기부의 현안 내용을 보면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기부에서는 지금 현재 불확실성에 초점을 두고 매우 위기 상황으로, 또 그렇게 대응하기 위한 어떤 TF를…… 그렇지만 산업부의 내용을 보면 물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렇게

위기 국면은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각 기관들과 그런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면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기조로 대단히, 조금 안일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자료를 보니까 현재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익에 과연 얼마만큼의 손실이 왔느냐? 그것을 수백 조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차이가 있겠지만 GDP의 감소 또 신인도 하락 우려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 인한 국채금리의 상승분, 외자의 유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의 가장 큰 성과를 나름대로 수출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몇 년 연속 지금 현재 수출, 대외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흐름으로 봤을 때 과연 이 경제의 흐름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냐. 대표적으로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장관님 어떻게 보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수출의 물류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대금 결제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조선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취소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게 아직은 그다지 눈에 들어오는 건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이재관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안질의라고 한다면, 현안 점검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렇지만 내일, 다음 달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얘기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하는 것이 그게 옳은 방법인 것인지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그래서 현안을, 현 상황을 저희가 설명드릴 때는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환율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관 위원** 그리고 중기부장관님, 지금 현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내수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하고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과연 해야 될 것이 예산의 조기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아까 어떤 위원님 4조 1000억의 삭감을 통해서 우리 내수시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바로라도 오히려 그 예산을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중액 요구 말씀하시는……

○**이재관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예산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예산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의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 지역화폐라도 해서 이 위기 국면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장관님은 그런 대안을 저는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위기 국면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15조 예산의 75% 조기 집행이 작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요.

저는 동행축제를 조금 더 넓혀서 여러 가지 세일과 관련돼 있는 그런 릴레이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기부만 하지 않고 여러 기관들과 함께하는 노력들은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제가 위원님께 이런이런 대책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매출의 증진과 관련돼 있는 어떠한 것들이 중기부 차원에서 할 수 있고 또 재정 당국과는 어떻게 협의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는 조속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어떤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경 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 중기부는 이러한 내수시장의 진작을 위해서 그러한 지역화폐에 대한 논의를 지금까지 그렇게 접근했던 소극적인 입장에서 저는 오히려 전향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 허종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계엄 때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정문이 봉쇄돼서 의원회관하고 소통관 사이에 쪽문으로 들어오니까 크게 막지는 않아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조금 있으니까 문을 막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좌측 편에 운동장 보일 겁니다, 국회 운동장. 한번 봐 보시지요.

저기에 헬기 3대가 뜨고 내리는데 1공수여단의 특전대가 저기로 내려왔었습니다. 3대가 계엄군을 내려놓고 다시 뜨고 3대가 내려놓고 다시 뜨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었고요. 정문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임무부대라는 707특수임무부대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특전사라고 하면 테러 제압이나 북한군이 왔다든가 이럴 때 오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저는 계엄군을 맨 처음 본 것은 1979년입니다. 부마항쟁 때 마침 제가 부산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영도다리 입구쯤 있었던, 당시에는 부산시청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계엄군과 탱크가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대치하고 있었고요.

80년에는, 물론 안덕근 장관님이나 오영주 장관님, 자주 보셨지요? 80년에는 대학이나 관공서에 다 탱크와 계엄군이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거고요. 그 이후에 40년도 더 지나서 이번에 계엄군을 봤는데 참, 그 순간에도 한 가지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군

인, 정말 장비는 좋아졌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지요.

대통령께서는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군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가 북한군도 아니고 테러범도 아닌데 거기에 꼭 우리나라 최고의 특전대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안 오시면, 국회에 올 일도 없으니까 질서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그러면 장관님 두 분이나 저나 동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비겁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다 기록에 남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나 반장만 잘뽑아도 1년이 편합니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요 계엄 봅니다. 이래야 쓰겠습니까?

이 계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느냐? 요새 저희들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송년회 인사를 하러 다닙니다. 평상시에는 보통 하루에 일곱 군데 열 군데 가는데 지금은 두 군데도 없습니다.

자, 제가 어제 갔던 데부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봐 보세요.

이곳은 인천 문학경기장 웨딩홀입니다. 평상시에는 보통 7~8건 정도가 있는데, 어제는 제가 직접 갔습니다. 저 세 군데가 있었는데 열관리, 조경업체 업자들 또 현대 관련 분들 세 군데가 있었는데 종업원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님, 비상계엄 이후에 너무 줄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종업원이 눈물을 글썽거려요. 그 일대가 읊씨년스러워졌어요. 불빛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넘겨 보시지요.

이것은 인천 석바위에 있는 가장 큰 식객이라는 식당입니다. 제가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했더니 ‘비상계엄이 발표되자 하루에 서너 건씩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매출 차이는 매일 15%씩 줄고 있습니다. 기업 회식, 단체 회식 다 줄어서 어떡 할까요?’ 이립니다.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이거 송의가든이라는 인천의 오래된 갈비집입니다. 똑같습니다. 매일 1건씩 취소되고 있고요, 매출도 감소하고 있고요. 자생단체, 일반인 회식 다 줄어서 이러다가는……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 이런 식당들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니냐 그러면 하루에,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최소한 7번, 10번씩 다 갑니다. 그러니까 연말에는 이런 식당들 저희가 20~30번씩 가니까 종업원들 다 친합니다. 그러니까 인사하러 가면 ‘죽겠습니다’ 이 말을 저희들한테 알려 주는 거지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이것은 미추홀구에서 가장 큰 CN이라는 웨딩홀입니다. 가장 큅니다. 비상계엄 나자마자 제일 먼저 5건 취소 전화가 왔답니다. 하도 많아서 매출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임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하도 이것저것 취소가 돼서 어느 정도의 모임이 취소가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대형 식당이나 웨딩홀이 이러는데 보통 식당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은 ‘한 팀도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일부 돌아보니까 '이제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넘겨 보세요.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12일에 한 것을 보니까 매출 감소 90%, 방문 고객 감소 90%, 연말 경기 부정적 90%, 소상공인 절반은 단체예약 취소, 향후에도 절반은 취소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중소기업 향후에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업도 제철이나 이런 데는 철근이 안 팔려서 정말 문제입니다. 중소기업도 문제고 자영업자도 문제고 이거 도대체 어떡할 거예요?

자, 자영업자든 소상공인이든 눈물을 정부 여당이 닦아 줘야 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이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맞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계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으려면 법적 책임과 함께 이 국민적 손해를 다 청구해야 된다.

두 분 장관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차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여파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송구하고 가슴 아픕니다.

저희가 13개 지방청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바로 지금 현황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카드 사용료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어떠한 정책들이 지금의 예산의 조기 집행과 함께 또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재정 당국과 함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무위원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엄과 관련한 반대와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련돼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에 있어서도 저희가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는 생각은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 말씀 엄중하게 저희가 새기고 있고요. 저희 산업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그냥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저희끼리 이야기하고 흘러나오는 소문 같은 걸로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맨날 격노한다, 남의 말 안 듣는다, 과기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R&D 감액 얘기했다가 쌍욕 먹었다, 온갖 이야기들이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정신이 아니고 소통 과정에도 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장관님들도 다 아셨었잖아요? 이 양반이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

보시는 게 저는 정상일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됐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 분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번 사태 전에는……

○**장철민 위원** 부당한 지시를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니요, 저……

○**장철민 위원** 지금은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됐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런 상황을 그전에는 겪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장철민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물론 알게 된 것들도 있어요. 정말로 저희가 그냥 생각하고 짐작했지만 진짜 윤석열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도 전 국민이 알게 됐고. 그에 반해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알게 됐고요.

그런데 또한 좀 우려스럽게 알게 된 것은 우리의 공직사회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실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신 게 저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좀 비겁하지 않은가 아니면 무력하지 않은가. 국민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 시스템과 우리 공직사회는 유능한가, 용기 있는가. 그런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궁금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뭐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있지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은 엄청 많았을 것 같고, 진짜 이런 미친 짓을 벌이기 전에도. 그러면 한 번쯤, 아니 꽤 자주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서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부와 이 일과 관련해서…… 제가 일을 하는 1년 동안 저는 사실 부당한 어떤 여러 가지를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날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으로서 아무리 그 시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책임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만 반복한다고 사실은 갑자기 용기 있어지지는 않아요. 갑자기 막 신뢰가 높아지지도 않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 특히 저는 중기부 직원들과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중기부 직원들은 정말 국민들에 대해서 저희 자영업자나 정책 대상자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의 수습 과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수습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다시 길에서 응원봉 흔들면서 수습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의 민생경제 이슈도 그렇고 국가적인 대외신인도 이슈도 그렇고요. 당연히 우리 공직사회와 정부와 국회가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조금은 비겁하고 무력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습 과정이요.

제가 지금 앓아 가지고 중기부랑 산자부 업무보고 자료, 현안보고 자료 진짜 한 다섯 번씩은 읽은 것 같거든요. 산자부 보고 자료를 한마디로 하면 생각보다 별일 없다예요. 중기부는 일은 크게 났는데 그냥 하던 것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사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야당이기는 하지만 지금 사실 여야 구분도 없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당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지금 상황은 아니니까. 저는 사실은 국방위고 행안위고 정무 라인 말고 경제팀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 야당조차 우리는 우리의 경제팀을 신뢰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팀을 신뢰한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당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야 국회가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폭풍 같은 불확실성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실 아주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의 장애 요인이 문제가 아니라 말도 안 되게 커져 있는 이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 야당이 할 수 있는 일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우리는 우리 경제팀의 유능함과 우리 공직사회와, 우리 정부의 유능함을 믿는다, 분명히 빠르게 상황을 안정 시킬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현안보고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읽어 봐도 ‘생각보다 별일 없다. 그냥 하던 것 하겠다’ 이 정도의 얘기로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여야가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까 예산 조기 집행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뭣 하러 내년 1월 1일까지 조기 집행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저희 민주당이나 우리 예산 과정을 공격하기도 좋잖아요. ‘우리 이럴 때 예비비 쓰겠다’, 지금 예비비 얼마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2조 7000억쯤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지금의 이런 험난한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직접 국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처가 여기에 다 앓아 계시고요. 이런 긴급한 재난적인 상황에서 아주 시급하게 민생 살릴 수 있는 방안 중기부·산자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를 들면 중기부는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금 바로 현찰 투입하겠다. 산업부는 이 상황에서 환차손을 겪든 수출 거래상 문제를 겪든 이것은 국가가 만든 손해이기 때문에 국가가 바로 다 책임지겠다. 지금은 우리 갑자기 쓸 수 있는 예비비 한 3조밖에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1조씩 쓰겠지만 그런 시그널이 가지고 있는 안정감이 대단하거든요.

사실은 정말로 산자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별일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메시지하고 별일 없는 결과로 딱 갚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겁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와 정부와 경제팀이 이렇게 유능해서 잘 극복했구나라는 결과를 내년 초에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적극적이고 무언가 용기 있어 보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이런 하나 마나 한 현안보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라도 우리 당 내에서라도 이야기할게요. 저렇게 뭐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수준으로는 국회가 드릴 수 있는 신뢰가 없습니다. 국민이 지금 우리 정부에 줄 수 있는 신뢰가 없어요. 계엄이 선포되고 그 이후에 이 혼란의 과정에서 도대체 우리 정부와 우리 공직사회가 뭐 했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고 국민들도 모르는데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자위 잘 안 열리거든요. 저는 두 분 장관님께서 위원장님께 우리 여야에 계속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 열어 주셔라, 제발 국회 열어 주셔라. 우리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혼란한 상황에 지금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 다 죽어 나가고 기업들이 이 불확실성 때문에 미치려고 하고 있고 환율은 원래 예상치보다 지금 50원 넘게 뛰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현안보고 이것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때려 부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여야 모든 위원님들과 간사님들, 위원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이것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수준으로 하면 국민들도, 다른 나라들도 우리 경제 내 어떤 플레이어들도 신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먼저 이번 계엄·탄핵 사태로 인해서 불안하고 혼란을 겪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집권 여당 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퇴진으로써 나라가 좀 덜 혼란한 가운데 이런 게 앞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만 또 10년도 안 된 상태에서 탄핵이라는 국가적인 오명을 안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타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장철민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계엄의 원인으로 지적했던 입법 또 탄핵, 특검법 이런 폭주 같은 것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 봐야지 좀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출 플러스가 지속되고 있고 국가신인도, 신용등급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심지어 오늘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고 또 원자재 수입하는 비용도 올라가고 그래서 수출 마진도 떨어질 거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유가도 마찬가지고 또 그래서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 위원님 얘기하는 것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수출 동향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거고 애로 사항 같은 것을 정치에서 좀 대응하시고 외국 정부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통상정책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이종배 위원** 이와 함께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이 506억 중에서 497억이 야당의 일방적인 전례 없는 예산 삭감 의결에 따라서 이렇게 삭감됐는데 산유국의 꿈이 짓밟히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이 삭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 방안을 강구해 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석유공사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면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충분합니까? 이게 한 1000억 이상 들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한 1000억 정도 지금 자체 예산으로 당장 내년에는……

○**이종배 위원** 회사채 발행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던 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저희가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혹시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에 더 반영하려는 노력도 좀 해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오늘내일 중에 첫 시추 예정이라 그러던데 어떻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지금 위치를 잡고 있고 내일 아마 공식 시추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내일 들어갑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이종배 위원** 많은 분들이 체코 원전 지적을 했는데 계약 체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셔야 되고 또 원전 생태계 복원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자칫 손 놓고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약속을 하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이종배 위원** 11차 전기본 이게 지난해 말 이맘 때쯤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야 간사님들 11차 전기본 빨리 통과시켜 주고 의견 있으면 의견 받아 가지고 하시고 국회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야당 위원님들 다 다니면서 설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중기부장관님,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또는 경기침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렵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내수가 좀 풀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풀리고 그러는데 소비심리도 굉장히 냉각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비심리, 소비를 좀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정부 전체가 나서서 하는데 중기부가 앞장서서 그렇게 호소도 하고 연말 단체회식 그것도 지금 잘 얘기를 하셨던데 더 노력을 하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중기부부터 다니면서 소비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저희 지방청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온누리상품권 같은 페이백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하면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주 대대적으로 강구해서 추진을 해 주시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들이 특히 어려운 때니까 하나하나 무엇이 어려운지 그런 것을 찾아가면서 하고. 지금은 소비 문제예요, 소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소비 진작입니다.

○이종배 위원 소비심리가 이제 냉각됐는데 이것을 좀 풀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기부의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위원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중기부뿐만 아니고 지방 중기청이든 중기부 관련 기관들이 지역에서도 앞장서서 활동을 하도록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미 저희가 지시를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돈도 조금 더……

○이종배 위원 지시만 해서…… 안 보이고 있어요, 안 보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캠페인을 하면 지방 언론에도 이게 보여지고 그래야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방 언론에 하나 뜨는 게 없을 거예요. 지시만 하고 끝내면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지금 계속 면밀히 챙기고 있는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종배 위원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정부 전체가 나서도록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이종배 위원 산업부도 마찬가지고. 산자부도 같이 뛄시고 그렇게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이 위기입니다. 윤석열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민생은 글자 그대로 도탄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2일 어디 간 줄 아시지요, 오 장관님? 어디 갔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민생토론회를 공주에서 했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랬지요. 공주에서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또 민간 상권 활성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공주산성시장을 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정진욱 위원** 거기에 가서 상인회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 온 행적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산자위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만한 대국민 사기극 보셨습니까?

오 장관님, 비상계엄 요건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정진욱 위원** 이번 비상계엄이 그 요건에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정진욱 위원** 수사 중이라 말하기 어려운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고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범치주의 국가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됐습니다.

안덕근 장관님, 비상계엄 요건 충족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당시에 그 회의를 주재하셨던 국무총리, 지금 대행께서도 그렇게……

○**정진욱 위원** 본인 생각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한덕수 총리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그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무슨……

○**정진욱 위원** 아니, 본인이 볼 때 어떠냐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소집 절차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정진욱 위원** 아니, 소집 절차가 아니고 전시, 비상사태, 그에 준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에 해당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욱 위원** 계엄선포 직후에 계엄사 지시사항 중에서 합참 계엄과에서 연락관 파견 요청을 했습니다. 파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정진욱 위원** 중기부는 받으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락이 왔고 담당자……

○**정진욱 위원** 담당자 배정했었지요. 그게 몇 시입니까, 배정한 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1시 몇 분으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1시 37분으로……

○**정진욱 위원** 1시 37분이면 계엄이 해제된 상황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때 결의가 이루어졌던 상황이고 국무회의 해제를 기다리고 있던 시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국회 결의가 이루어지면 대통령은 ‘즉시’,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해제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야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결정이고 행동이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욱 위원 안덕근 장관님,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무려 90%를 깎아 버렸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산업부에서 가지고 있는 원전 관련 예산은……

○정진욱 위원 아니, 사실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산업부 관련된 예산에는 전혀 그런 바가 없습니다.

○정진욱 위원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4.1조밖에 깎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예산 삭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실제로 예산이 예비비라든가 또는 불용으로 쓰이고 있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다면 실제로 깎은 예산은 검찰이라든가 또는 경찰의 특활비, 특경비 외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산안 자세히 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런데 저희는 동해 가스전 같은 것들이 좀 끼어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동해 가스전, 아까 체코 원전이라든가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특히 체코 원전에 대해서 의원외교를 해 달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든가 체코 원전, 석유가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원전을 수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탈원전주의자 아닙니다. 수출하는 것 저희 찬성합니다. 다만 그 관련된 자료를 숨김없이 저희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협조를 구하려면 그 사전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 저희는 최대한 협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정진욱 위원 최대한 협조를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실제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렸고요.

○정진욱 위원 다 지워진 정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열람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다 지금 최대한 협조를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상대방……

○정진욱 위원 유신 때 계엄 상황에서나 봄 직한 그런 방식의 회의록 같은 것을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자, 비상계엄 상황 보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계엄선포 전에 국무위원들이 모였는데 그 시간이 5분으로 돼 있습니다, 행안부가 보낸 자료에. 그런데 송미령 장관은 2, 3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오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사실 제일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개의 시간과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정진욱 위원 아니요, 개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이 나타났었지요. 그리고 갔지요. 그 시간이 얼마 동안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일 마지막이었고 제가 도착했을 때 거의 즉시, 조금 이석하셨다가 다시 나가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됐습니다.

야당 국회의원과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적법 절차를 통해서 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아까 국민의힘 나경원 위원은 이제 헌법과 법률의 절차 시간이라고 말했는데요. 계엄과 내란의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복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란은 진행 중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있고 내란 총책 김용현은 감옥에서 들고일어나라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의 준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모든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과정은 복기의 과정입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고 그것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밝히는 것,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국회에서 해야 하느냐. 내란 주범의 책임, 범죄를 덮어 주려는 의도가 아니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형사상 책임만이 아닙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물어서 우리 국민들이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에 나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산자중기위에서 민생 법안 또 산업을 돋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준위핵폐기물 법안 같은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산자중기위 한 번 여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오늘 회의도 간신히 연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식으로 법안 심의를 회피하면 대체 국민의힘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렇게 법안 심의를 하지 않으면 법안 상정이 절차대로 정해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민생경제회복단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범했습니다. 허영 예결위 간사님이 단장을 맡고 제가 간사를 맡았습니다. 당내 민생경제 전문가인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윤석열이 망친 대한민국 경제·민생, 민주당이 살려 내겠다는 약속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경원 위원님 신상발언 듣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오전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민주당 위원님들도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대통령의 계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해제 요구 의결에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해제 요구 의결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해제 요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탄핵과 형사 절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차분히 지켜보고 오늘은 우리가 국회에서 좀 더 우리 민생 안정을 위한 이야기를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김원이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하셨으니까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대리 박성민 아까 그 발언에 대해서……

○나경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날……

○김원이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저도 정정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더 설명……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때 국회로 막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국회가 전체적으로 통제돼서 출입이 통제되었다는 것, 우리 텔레그램 방이 다 공개돼서 잘 아시겠지만 통제된 것에다가 또 몇몇 의원님들이 진입하려다가 상당히 욕설을 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겠다 해서 당사로 갔었던 그런 사정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김원이 위원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삭제해 주십시오. 사과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성민 이야기 들어 보세요.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에게 욕설하신 분들이,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듣고 오셔서 지금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그쪽 지지자 아니신 건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가 계엄을 옹호하거나 그런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국회에서 미래를 위한 이야기를 하자라는 뜻이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진욱 위원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나경원 위원님께서 본인 발언에 대해서 일부 좀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이해를 돋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신상발언은 이것으로써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아니, 그런데 충분치 않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향엽 위원 신상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진욱 위원 아니, 제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성민 아니요,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합시다, 이 정도로.

○권향엽 위원 그래서 정확한 팩트 확인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팩트 확인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진욱 위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아니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정진욱 위원 아니, 뭐가 두려우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성민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정진욱 위원 뭐가 두려워서 말을 못 하게 하십니까?

○위원장대리 박성민 두려운 게 아니고……

○김원이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권향엽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말씀을 좀 가려서 하십시오.

○정진욱 위원 뭐를 가려서 합니까?

○위원장대리 박성민 뭐가 두려워서 이야기를 못 하게, 발언권을 안……

○정진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언 기회를 주셔야지요.

○위원장대리 박성민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진욱 위원 발언 기회를 그러니까 주셔야지요.

○위원장대리 박성민 발언 기회를 끝없이 어떻게 줍니까?

○정진욱 위원 끝없이가 아니고 우리 중에 누가 얼마나 신상발언을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성민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김원이 위원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 맞고요. 의사진행발언 1명이라도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성민 의사진행에 대해서 권향엽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께서 본인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발언에 대해서 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권향엽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 저한테도 발언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성민 못 드립니다.

○권향엽 위원 오늘 지금 현재 오전 앞부분에 나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는 국회에 있으면서 그 비상계엄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이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금 봐 왔던 사람으로서 사실관계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저도 그것을 보고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당황스러워서 저는 내 지역구 4개의 지자체장을 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현재 비상계엄 내렸으니 보시고 대비하시라는 말씀을 하면서 저는 국회 본청으로 왔습니다. 오면서 의원님들한테 단톡방에 ‘지금 국회본회의장으로 오셔야 된다. 회관도 위험하다. 비상이다’라고 하면서 국회 본청으로 향해서 오는데 이미 3문은 경찰 병력에 의해서 통제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제가 본청에 왔을 때 본회의장은 열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저희들도 단톡방에서 대응을 하고 문이 지금 현재 막혀 있으니 각 열려 있는 문으로 오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부랴부랴 왔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어서 들어올 수 없었다. 그래서 당사로 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미 카톡방에도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11시 9분경에 추경호 원내대표 명의로 문자 공지가 비상의총을 국회 본청이 아니라 당사에서 한다라고 수정 공지가 되어서 그렇게 간 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따라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출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았다로 들릴 수 있는데 국회의장님,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담도 뛰어넘고 다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자 헬기도 떴었고 무장군인들도 다가오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지만 지금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상임위 증언들을 통해서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포위돼서 들어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앞에 말씀이.....

○위원장대리 박성민 신상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얘기, 답변 듣고 가시지요.

○위원장대리 박성민 그만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또 권향엽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창원 성산구 지역을 지역구로 두는 허성무입니다.

산자부장관님, 불법 비상계엄, 내란 행위가 발생하고 며칠 있다가 윤석열 씨가 2분 담화를 발표했어요.

(박성민 간사, 이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때는 굉장히 위축된 모습으로 그리고 당에다가 뭘 다 위임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리고 12월 12일 그 이후에 29분 담화를 다시 발표했습니다. 그때 29분 담화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좀 봤습니다.

○허성무 위원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무려 90% 깎았고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은 거의 전액 삭감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몇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깎인 게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저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허성무 위원 2차관님, 산자부에서 원전 관련해서 몇 개 세부항목으로 예산 신청했습니까? 몇 개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24개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허성무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전체 4889억 원 정도.....

○허성무 위원 그렇지요.

1원이라도 깎인 게 있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전액 다 반영돼 있습니다.

○ **허성무 위원** 예산소위에서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이것 하나 관련해서 아직 R&D도 제대로 다 안 됐는데 센터부터 구축하자 하니까 너무 빠르다, 이것 일부 삭감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 본 위원이 ‘반도체만 파운드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SMR도 미래에 파운드리가 있을 수 있다. 그걸 위해서 미리……’, 방어해서 이것도 살렸습니다. 단돈 1원도 깎인 게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12일 날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 것 아닙니까? 산자부는 거기에 뭐 자료 하나 낸 게 있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단들한테 저희가 저것은 해명하고 설명을……

○ **허성무 위원** 기자들한테 설명하고 해명할 때는 반드시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 담화를 하고 난 2시간 후에 내가 개인적으로 성명서를 냈어요, 본 위원이. ‘대통령의 이야기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 일부 조금 감액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다 발표를 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 저게……

○ **허성무 위원** 선전·선동을 대통령이 한 것 아닙니까?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지지세력 결집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의 어긋나고 비열한 짓에 부처에서 단 한마디도 못 한 것 아닙니까?

국무위원으로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자료 하나 제대로 내지도 못한 것 아닙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시스템상 보도설명자료라는 게 잘못된 기사가 나갔을 때 저희가 해명을 하는 건데 이것은 기자단 통해 가지고 정정된 기사들이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따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 **허성무 위원** 그 PPT 처음 것 다시 띄워 주세요.

저기 11번을 보면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이게 체코 원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10원도 안 깎이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체코 원전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프레임을 써워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모든 탓을 민주당에 돌리고 국회의원들한테 돌리는 것 아닙니까?

17번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이게 미래형 원전 아닙니까?

그래서 12·12, 대통령의 29분에 걸친 대담화를 듣고 그날 저녁에 어떤 언론인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는 비열하고 비겁하고 저열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원이 위원** 대답하세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잘못된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상당히 저희가……

○ **허성무 위원**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 뉴스를 말하고 국민을 거짓으로 선전·선동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불법적인 내란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당일 날 계엄 해제를 위한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두 분 장관님은 간부들 다 모아서 긴급회의를 개최했지요? 그 회의 하라고 누가 지시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시한 건 없었고요.

○**허성무 위원** 대통령실에서 없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없었습니다.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일종의 비상……

○**허성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간부회의에 참여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뒤에 산자부 간부들.

(손을 드는 간부 있음)

그날 정말로 회의록이 없습니까? 이런 비상한 회의에 회의록을 작성 안 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회의록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도…… 그러면 그날 장관님이 무슨 지시를 하셨고 각자는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허성무 위원** 지금이라도 뒤늦게라도 작성하세요. 작성해서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세요.

오영주 장관님, 그날 회의 소집하셨는데 중기부의 참여하신 간부들 손 한번 들어 주세요. 어느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손을 드는 간부 있음)

내려 주시고요.

중기부도 회의록이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말씀드린 대로 사실 비상 상황이어서 의견을 교환하고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도 장관님이 지시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시할 때 받아 적었을 것 아닙니까, 메모가 있을 거고.

두 부처 다 지금 다시 회의록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본 의원실로. 내일 정오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오 장관님, 지금 이 사태 때문에 티몬·위메프 구제를 위한 긴급한 법률 만들려고 했는데 대응책도 안 되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저희 중기부 차원의 대응책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지원하고 플랫폼에 하고 있는 건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성무 위원** 그 대책도 철저하게 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리고 비대위하고도 계속 만나 왔었고요.

○**허성무 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두 분 장관님과 그때 참여했던 간부 공무원들은 장관의 지시사항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이 각자 하셨던 말씀 다 재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허성무 위원님.

오늘 이 상황에서도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서 잠시 이것 공지도 좀 하고 한번 간략히 물어보려고 합니다.

산업부장관님, 루마니아 원전 설비개선사업 수주 사실을 알고 오셨나요, 올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위원장 이철규**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게 1조 2000억인가요, 우리 한수원 봇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동안 산업부도 같이 협업을 해 왔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저희가 뒤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막바지에 혹시 작금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허성무 위원** 위원장님, 제가 30초만, 마이크 꺼졌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허성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성무 위원** 체코 원전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차질 없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유럽의 원전 수출이라든지 또 다른 제삼국의 수출은 거의 불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각 의원실에 따로 설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문할 수 있든지 없든지 향후에 초당적 협력 방법도 찾으셔야 되고요.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님들에게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신 있잖아요? 자신 있으면 설명해야지 왜 설명이 안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다음에 이번 사태로 지금 로템의 K-2 흑표 전차, 9조 원 수출 문제가 최근에 덜레이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허성무 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방사청하고 외교부하고 협의라도 한번 하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저희가 지금 방사청하고 그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니까요.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협의한 내용, 어떻게 올해 안에…… 원래 올해 안에 재계약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2차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고 최대한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의원실로 개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허성무 위원님, 아마 창원지역의 기업들이 지역구에 계시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알고 문제를 인식하고 계신가 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산업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산업 활동은요.

그래서 이렇게 여야 간의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충돌할 수 있지만 국가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뒷받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아까 이언주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제1당도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뒷받침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관계국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내 상황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차질 없이 다할 것이라는 사실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저는 뭐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고 이런 계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탄핵, 입법 독점 민주당, 그런데 특정인을 거론하거나 그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산자위만큼은 경쟁으로 인해서 목소리 높아지는 것은 서로가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앉아 계시는 장관님들, 청장님, 모든 공직자분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상황이라든가 굉장히 엄중하고 힘들 때 일의 본질을 찾아서 일에만 포커스 맞추시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옆에서 이렇게 보기엔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잘 좀 극복해 주시고.

오늘 아까 위원장님이 루마니아 원전도 말씀을 하셨는데 쌓여 있는 일들 슬기롭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분발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반도체 산업계하고 또 언론에서 현재 이런 복잡한 정국으로 국회가 이제 올 스톱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특별법이 표류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큰 게 사실입니다.

장관님 또 산자위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반도체 특별법이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한 최우선 법임을 감안하셔 가지고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상황이고 산중위에서 꼭 좀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저희가 산자위 법안소위 때 반도체 특별법상에 주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를 두고 여러 토론을 벌인 바가 있어요. 이후에 저도 그 노동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시 살펴보고 산업계 의견도 듣고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 목소리도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현재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어떤 근로시스템만으로는 반도체 설계나 R&D에 있어 현실 적용에 조금 제약이 많다 이런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PPT 띄운 것을 한번 좀 봐 주시지요.

근로시스템에 유연함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시간제가 있는데 그 애로점들이

뭔지 제가 쉽게 좀 적어 놨으니까 빨간 글씨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맨 왼쪽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일간 11시간 이상 휴식 기준이 있어서 반도체 R&D 업무의 연속성 차원의 집중이라든가 신속 대응 업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 11시에 퇴근하면 반드시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출근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노동부에서 선택근로제가 사실은 신상품 개발이라든가 R&D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도 이런 경우 11시에 퇴근해서 오전 10시 이후에 출근해야 되는데 10시 전에는 출근 못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만에 하나 오전 10시 이전에 고객사로부터 시급한 상황이나 미팅콜이 있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가 없고 R&D 인력들이 모여서 미팅을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이 제도 자체가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성수기, 비수기 등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어컨 생산, 냉장고 생산, 제조업 중심의 업종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시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계절상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종에 국한된 제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제도의 크나큰 문제가 뭐냐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을 6개월 전에 미리 정해 놔야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 개발이 주 단위로 6개월 전에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재량근로제는 일본이 1987년도 금융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금융투자분석 업무를 위해서 도입한 것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노동부에서. 그런데 이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R&D 업무라고 하는 게 금융투자분석 업무하고 다르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라든가 주기적인 어떤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R&D와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맨 오른쪽에 보면 마지막으로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가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많아요. 이 제도가 하루 평균 10시간 30분 정도 근무할 수 있다, 그런데 휴게 시간을 1시간 30분 포함하면 총 12시간을 회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전 7시에 출근하면 오후 7시에는 무조건 퇴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엔비디아 사례도 보면 시간 제약이 없어요. TSMC는 주 한 칠팔십 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주 단위 시간을 경직되게 제약을 하면 이게 국가 간 경쟁력에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즉 근본적인 문제가 R&D 인력들이 주 단위로 근무시간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에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네 가지 다 운용하는 데 굉장히 실효성이 낮다는 얘기고 노동부에서도 확인을 해 보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이게 사실은 제조·생산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은 연봉 13만 달러 이상의 경우 근로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가 연봉 1075만 엔이니까 현재 가치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 되지요. 근로시간 제약이 없어요. 단 일본에는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 그러니까 아마 주 한 이틀 정도, 이틀이 조금 안 됩니다, 부여를 해 주고 건강 문제를 상담하는 창구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적어도……

1분만 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1분만, 여기 위원들 몇 사람이 질의를 안 한다니까……

○고동진 위원 이제 적어도 반도체산업 분야 R&D 업종 이 중에서도, 다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위 한 10% 정도 되는 고급 설계 인력들에 대해서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하고 그 대신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지급을 해 주고 건강 관리에 대한 보상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 준다 이거지요. 특히 이렇게 함으로써 반도체 특별법을 진행을하고 따라서 하위 시행령 규정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 야당 위원님께서 2022년 챗GPT 등장으로 그 전과 후가 나뉘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 줬어요. 그게 메모리반도체가 범용에서 주문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개발 기간이 늘어난 거거든요.

반도체 특별법으로 주 52시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따라서 직접보조금 문제도 다시 한번 보자. 향후 10년의 노력이 향후 이삼십 년 풍요로움을 결정 짓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도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장관님 이하 박 차관님 모든 분들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같이 짜 주시기를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야당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장관님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우리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미국, 일본이 그런 것들을 지금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고임금 전문 직종에 있어서는 그런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근로조건을 좀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고동진 위원 다음주에 법안소위가 열려서 이것을 검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국회도 노력할 테니까 장관님 이하 차관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아 위원 준비한 건 아닌데 산자부장관님께 아까 고동진 위원님 질의한 것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HBM을 개발할 때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지켰지요? 지금 삼성이 HBM의 개발을 잘 못 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게 주 52시간 때문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김동아 위원 주된 원인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상 판단의 잘못된 리더십에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 안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R&D 인력들의……

○김동아 위원 제가 하여튼 이 부분은 주된 질의가 아니니까 나중에 법안 심사하면서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오영주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맞습니다.

○김동아 위원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하면서 그 명분이 우리 민주당의 예산삭감과 폭거 그리고 이로 인한 국가 재정의 농락, 행정부의 마비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동아 위원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기사를 보니까 극우 유튜버의 주장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런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런 기사는 제가 볼 수 없었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런 기사는 못 보셨고. 장관님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서 장관님 혹시 책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가져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뭐 없으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어쨌든 짧은 시간이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계엄 바로 직전 날—12월 2일입니다—야당 주도, 민주당 주도 감액 예산안 예결위 통과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 참석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김동아 위원 이 브리핑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예산을 처리하지 않자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외면한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장관님도 같은 입장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중기부가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또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많은 예산들이 정부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지만 저희가 증액을 논의하던 예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던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 한번 읽어 볼게요. 장관님이 직접 하신 발언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 감액 의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감액이 뭐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저희가 예비비 문제를 그때 전 부처적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의 감액……

○김동아 위원 예비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런데 예비비의 경우에 만일 여러 가지 변동 상황이 있을 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동아 위원** 아니, 예비비가 민생경제 회복에 관한 예산인지 맞다, 아니다라고 대답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는 민생 회복에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아 위원** 회복에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만일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김동아 위원** 예비비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어려운 측면이 생긴다면……

○**김동아 위원** 예비비는 국가에 재난이나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는 예산이지 민생 경기가 안 좋을 때 쓰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김동아 위원** 그런 말씀이 지금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감 있게 그걸 계엄을 선포하는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김동아 위원** 장관, 위메프 사태 때 예비비 쓰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김동아 위원** 위메프 사태 때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무너질 때 예비비 쓰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 기존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예산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김동아 위원** 뭘 기존 예산을 쓰셨어요? 그냥 대출이나…… 대출 이율도 고이율로 대출을 해 줬지 무슨 예산을 쓰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이율 자체는 저희가 조정을 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발언이 타당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소상공인이니까……

○**김동아 위원** 올해 예비비 지금 얼마 남아 있는지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장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동아 위원** 지금 집행액이 1.3조 원에 불과합니다. 올해 예산으로 치더라도 지금 2.4조 원 감액해서 2.4조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생경제 회복과 무슨 상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논리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 그 당시에……

○**김동아 위원** 이 기자회견 왜 참석하셨어요? 누가, 장관님이 직접 참석하신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 경제부처에서 논의를 통해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갔던 행사였었지요, 간담회.

○**김동아 위원** 아니, 산자부장관님은 안 가셨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러니까 저희 기재부총리와 쭉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브리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뒤에 보면 ‘이번 예산안 감액 의결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혹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800여 만의 소상공인,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들에게 더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감액 예산이 이런 부분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감액 예산 부분보다는 저희가 의결을 감액 의결만 했고 증액은 같이 합의가 안 됐으니까……

○**김동아 위원** 예산 증액권이 국회에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니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산이지요.

○**김동아 위원** 예산 증액권이 국회에 있습니까? 비난을 하려면 경제부총리를 비난하고 대통령실을 비난해야지요. 장관님이 예산 못 챙긴 것을 왜 국회를 비난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 이유랑 똑같은 논리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증액을 논의하고 있던 과정에서 증액되지 못하고 감액 의결로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발언을 하시려면 애초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스스로를 질책하고 정부를 질책하는 게 면저지 않습니까? 전날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게 내란의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선전·선동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 것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초유의 감액 예산이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부처의 장관들이 조금 더 합의를 통해서 더 나은 예산으로 가져가자 하는 그런 거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야 합의를 왜 국무위원이 관여를 합니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국무위원들도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었나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아 위원** 나중에 제가 따로 답변……

잠깐만 1분만……

안덕근 장관님, 오늘 아까 여러 지적 받으셨지만 12월 수출 증가세다, 직접적인 수출 차질이 제한적이다,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참 나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수출도 잘되고 대외신인도도 좋고. 이게 공식 입장 맞습니까? 수출 좋은 것 사실 2023년 수출이 바닥 찍어서 기저효과로 좋은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러니까……

○**김동아 위원** 그리고 수출 좋은 거 뭐 그게 낙수효과가 안 일어난다는데 수출 좋은 것 반도체나 마진 안 나는 선박 관련된 것 그런 부분 수출 증가세가 있어서 수치상 높아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대로 된 수출도 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중견·중소기업들 다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부분이 있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지금 현 상황 설명을 드리다 보니 지금까지 물류라든가 결제라든가 이런 게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은 크게 인지되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정치 상황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최대한 이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동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동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서왕진입니다.

계엄 사태 직후인 12월 4일부터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14일까지 열흘 동안 그리고 최근 까지도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3 계엄 사태로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대거 이탈한 것 확인했고요. 원달러환율이 폭등을 했는데 오늘 1450까지 또 폭등한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IMF 외환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또는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 근접한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위기가 초래됐습니다.

산자부장관님, 환율이 오늘도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이게 유발할 수 있는 산업이나 통상 위기 문제는 어떻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그래서 저희가 환율 같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금융 당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발표를 했지만 그나마 올해는 외국인투자도 지금 역대 최대치로 들어오고 있고 수출도 그나마 아직은 흐름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지금 산업에 크게 문제를…… 현 시점 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중소상공인 등의 민생경제는 더 심각한데요. 비상계엄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10명 중 5명이 피해를 봤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번에 조사한 걸 보면 송년회 등 연말 특수를 기대했는데 사회적 불안감으로 인해서 단체 회식이 취소되거나 여행 숙박 취소가 이어지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46.9%, 50%의 피해를 봤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이게 비상계엄 이후 열흘 동안 벌어지거나 더 심각해진 그런 일들이고요. 그나마 지난 주말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에 그 직후부터 경제지표나 대내외 반응들이 약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또 다행스러운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이렇게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로서는 사실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이번 사태 이후에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발표한 게 있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즉각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1일부터 기존에 확보된 5조 원 예산의 조기 집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인 매출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산자부장관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의 핵심 원인이 국정의 불안정성 또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점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서왕진 위원** 지금의 이 국정의 불안정성·불확실성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점도 인정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서왕진 위원** 그나마 계엄 사태 이후 나락으로 치닫던 각종 경제지표 또 상황들이 일부 회복세로 돌아온 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최대한 대외신인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먹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사실 우리 경제위기 상황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하고 이런 위기 환경을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탄핵 과정을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고 또 내란과 군사반란 책임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 법적 책임을 물어서 이 상황을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부정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가지고 탄핵이나 수사 절차를 지연하거나 방해하려는 집단, 이런 집단은 국가 경제위기라든지 민생 고통보다는 자기 집단의 알량한 정치적 손익계산이 우선인 집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의해서 자행된 이번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또 용기 그다음에 계엄 해제 결의와 탄핵 결의를 이루어 낸 국회의 어떤 민주주의 회복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편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직을 걸고 막지 못한, 이런 어떤 행동을 한 국무위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점 여기에 대한 많은 분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점 참 아쉽고 한계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또 국민과 국회를 향해서 총과 탱크를 들이댄 일부 정치군인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항명한 군 지휘자도 한 명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국회를 총칼로 장악해서 기능을 정지시키고 야당 지도자를 포함한 의원들을 수방사의 B1 병커에 감금하려 했던 이런 내란과 군사반란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당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한다는 점, 이런 점들은 상당히 비판적인 우리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위기의 경제를 안정화하고 일상이 무너진 국민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속한 탄핵 절차에 협력하고 내란과 군사반란범에 대해서 즉각적인 수사와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것이 저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정부 내에서 어쨌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실무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고 독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도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민생 경제 분야에 함께 공조하자는 제안을, 이미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희 조국혁신당도 적극 동의하고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나 탄핵심판 훼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생경

제를 책임지는 우리 상임위에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산자부장관님, 중기부장관님께서도 국무위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정도로 이번 상황 자체가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위협이었고 우리 국가의 어떤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국가에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당황하고 잘 알 수 없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그 본질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서 자성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절박하고 적극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긴급하게 제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두 분 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저력과 회복력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우리나라 경제·산업계의 저력과 회복력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메시지 발신하고 언제까지 이걸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산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먼저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책임감·책무감 정말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김종민입니다.

장관님들께 저도 12·3 계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들 개인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여러 질의응답 과정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무회의와 국무위원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에 계엄해제권이 있어서 저지를 한 거지요.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참여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위협과 돌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를 채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국무회의가 계엄에 대한…… 국무회의가 심의기구예요, 기본적으로, 헌법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정권자고 그 결정을 심의하는 정도 권한만 있지 의결기구가 아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이렇게 얘기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헌법 조항이요 언제 들어온 거냐 하면 제헌헌법 때가 아니고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 때, 6차 헌법 때 들어온 겁니다. 제헌헌법에는 국무회의가 계엄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계엄을 할 수 있었어요. 해제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63년도에 군사정권 때 대통령 권한이 제왕적으로 강화되면서 생긴 제도인데 아직도 대한민국이 이것을 못 고치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국무회의에 의결권이 있었다면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는지, 저는 지금 같은

문화였다면 국무위원들은 거의 약간 대통령의 부하직원 같은 개념, 국민에게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의 개념보다는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이행하는 그리고 보완적으로 심의만 하는 이러한 기구로서 계속된다면 아마 못 막았을 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헌법 조항은 심의기구여서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제헌헌법의 헌법 정신은, 국무회의 설치의 헌법 취지는 국무위원이 계엄, 대외 조약, 비상조치를 의결하는 의결권을 가진 기구로 설치한 겁니다. 그런 자세로, 그런 정신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국무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런 제도적 결함은 또 국회가 개헌 과정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제헌헌법의 헌법 취지는 현 국무위원들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꼭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 결정하면 국무회의가 의결기구에 준하는 정신을 가지고 비판도 하고 또는 의견도 제시하는 그런 문화가 21세기의 선진 대한민국에 필요한 자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 현안 관련해서 지금 미국 트럼프 당선자 측하고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하느냐 국민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외교부 중심으로 TF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늘 당부하는데 지금 현직에 있는 담당자분들, 외교부나 아니면 통상본부장이나 통상 관련된 관료분, 현직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잘 아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잘 모를 수도 있지요.

사실 외교는 초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는 히스토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때일수록 휴먼트 개념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민간이든 전직이든…… 지난번에 트럼프 행정부하고 같이 협상했던 외교 혹은 통상 자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들 중에? 지금 은퇴하신 분이나 아니면 퇴임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발굴해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 통상과 외교에서는 이런 초당적인 게 글로벌 스텐더드잖아요. 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우리 장관님께서 좀 각별하게, 민간과 전직들을 잘 발굴해 보셔서 지금 트럼프 신행정부 또 당선자 측과 통상 관련된 국가 이익을 좀 지키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중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엄 때문에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외부에서 충격이 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심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우리 기저질환이 있는 부위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중국발 공급 과잉, 이게 지금 한국 경제의 엄청난 기저질환 성격의 취약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혼란 상황들에서 뭔가 영향을 받아서 더 악화될 수 있잖아요.

롯데가 혼들린다고 하는데 지금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히 폭망 수준이더라고요, 산업 전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외부적 충격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최근에 보니까 중국발 공급 과잉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거의 전 분야에 파상적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보니까 롯데렌터카, SK렌터카 해서 렌터카 회사들

을 중국 자본이 다 끌고 갔어요. 우리 대한민국 렌터카 70%를 중국 자본이 지금 사모펀드라는 이름으로 가져가 버렸거든요. 이게 중국이 전기자동차를 우회해서 진입시키기 위한 그런 통로라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중국 자본이 치고 들어올 때 여기에 대해서 고용승계라든가 아니면 우리 통상적인 차원의 대응이라든가 우리 시장 보호라든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으로서의 R&D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들이 좀 빨리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시장에서의 아우성은 되게 큰데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해 주고 안심시켜 주고 내놓는 게 좀 약하다. 좀 안타까워요, 그게. 어떻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치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내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산업정책이나 통상정책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려 사항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짧게…… 중기부장관한테 말씀을 못 드려서.

중기부에서도 지금 현안 중에 원래 우리 예산 자체를 잘못 세워서 정책금융이 민간 모태펀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책금융을 줄여 가지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R&D도 문제지만 이게 벤처펀드라든가 투자 생태계가 상당히 혼들려 있거나 혼들릴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데 지금 이런 국내외적으로 경제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더 어려워요.

벤처투자에서 선정돼 있는 펀드들이 펀드 완성을 못 하는 사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좋지 못한 LP들에 의해서 어렵게 그냥 막 끼워 맞춰서 펀드가 구성되면 중기 생태계가 상당히 안 좋아져서 저는 이런 점도 최근 이 상황들을 보면서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모태펀드에서 돈 투자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완성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챙겨 보시고 정책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현장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펀드 결성이 빨랐습니다만 제가 챙겨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은행들은 상황이 이러니까 다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챙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위원**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두 장관께서는 52회 국무회의

브리핑을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니요, 직접 개인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권향엽 위원** 53회도 못 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권향엽 위원** 그냥 암묵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국무회의입니까? 사실은 52회, 53회 없이 바로 54회 국무회의 브리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구체적으로 회의에 나오라고 했었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사실을 듣고 왔습니다. 참석하신 오영주 장관님,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국무회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셔서 1급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적어도 지금 현재 국무회의라고 하면 소집한 사람이 있고 참석한 사람이 있으면 안건이 구체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기록은 남겨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식 회의가 아니었다면 그다음에 이어서 54회라고 할 게 아니라 52회, 53회 이렇게 나가는 게 맞겠지요? 그게 상식적인 것이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아시겠지만……

○**권향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방금 존경하는 혀성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두 분 장관님께서 1급 간부회의, 간담회라고 할까요, 회의 소집한 그것에 대해서도 회의록을 작성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작성되면 저희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경제부총리가 각국 재무장관 및 주요 국제 기구 총재, 글로벌 신평사 및 금융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내용 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권향엽 위원** 그리고 6일은 경제부총리와 함께 주한 외국상의 간담회를 함께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권향엽 위원** 4일 서한하고 6일 주한 외국상의 간담회 때 내용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지는.

○**권향엽 위원** 당시에 그러면 비슷한 내용이었으면 4일 서한에서도, 6일 간담회에서도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취지도 설명을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런 건 없었던 걸로……

○**권향엽 위원** 안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권향엽 위원** 왜 안 하셨지요?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지 않고 우리는 아무런 문제없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문제가 없던 게 아니고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저희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국무위원도 지금 계엄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 시국에 저희는 우리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기업들하고의 경영 관계나 이런 것들은 계속하라라는 저희가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권향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시 말씀에 보면 비상계엄 및 이에 따라서 발령된 모든 조치들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4일 그 서한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절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각 국 재무장관 등에게는 거짓을 알린 것이지요. 왜냐하면 대통령 계엄 해제 절차만 적법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선포할 때도 국무회의에 의결이 되지도 않았고 오영주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맞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계엄법 제5조에 의하면 계엄선포뿐만이 아니라 계엄사령관의 임명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한 국무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없습니다.

○권향엽 위원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없습니다.

○권향엽 위원 계엄선포 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박안수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전혀 없습니다.

○권향엽 위원 없지요? 3일 날 오전에도 국무회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권향엽 위원 그래서 위법적인 계엄의 절차적 하자가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부장관님, 산업부장관님은 윤석열 정부 첫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산업부장관이 되셨습니다. 즉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955일째 앉아 계십니다. 한덕수 총리만큼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 오신 분인데 지금의 심경이 어떠신지 잠깐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향엽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임기 동안에는 제 책무를 끝까지 수행을 하고 우리 산업계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지요. 두 분 장관이 참석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권향엽 위원 오늘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권향엽 위원 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찬반 논의가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권향엽 위원** 장관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피력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 소관하는 법은 중감법이었는데 중감법 관련해 가지고는 이를 전에 경제 6단체가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그런 바가 있어서 저희도 좀 우려를 개진을 한 바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재의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신 거네요. 오늘 현안보고를 보면 실물경제 문제없다, 대응 체계 구축했다라고 이렇게 요약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권 행사가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없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실물경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서 저희가.....

○**권향엽 위원** 불확실성을 더 키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감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가 사실 우리나라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법들이 이번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산업계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고 경제단체가 다 반대하는 법이 통과가 되면 문제가.....

○**권향엽 위원** 시간 관계상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한 달 뒤면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수출품도 10%의 관세가 붙는데 이에 대한 산업부의 방어 전략은 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지금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걸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나리오가 상당히 현실화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저희는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철강, 석유화학 등 많은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지 계엄 때문이 아니라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정말 절대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는데 불확실성이 더 커져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두 분 장관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제안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국회를 열어 달라 그리고 야당 위원들께도 찾아와서 함께 협조해 달라, 적극적으로 함께 협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 협의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게도 국무위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와서 함께 협의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노력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노력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권향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홍 위원 김교홍입니다.

제가 5시간을 지켜봤어요, 장관님하고 차관님, 공직자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 답답해요, 저는. 장관님들께서 윤석열 씨가 내란, 쿠데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죄송스럽다 사과도 하시고 그러는데 말씀은 사과를하시는 데 진정하게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이 나는 드는 거예요,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예를 들면 오늘 긴급 현안보고라고 된 보고서를 보면 그냥 기존에 했던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한 것뿐이에요. 제가 요즘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행사는 빼짐없이 가고 있어요, 이삼일 동안. 제가 일부러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얘기하고 얼마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조사분석서까지 나왔는데 지금 산업부나 중기부에서는 12월 4일 날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지금 15일이 지난 시점 아니에요? 그러면 각 영역별로 여론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통상 업무라든가 수출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여기 국·과장들, 팀장들을 배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엄 이후에 나타났던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를 여기 적시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도식적이에요.

그리고 계엄 이후에 나타난 거는 그냥 불안정성만 표현을 했지 실질적인 원인이 여기에 적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계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은폐·엄폐 또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런 거가 이 자료에 깔려 있어요. 두 분 장관님들 정말 자성해야 돼요. 본인들이 계엄에 대해서 동의는 안 했다고 하지만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임금이 잘못하면 ‘안 됩니다’ 항소문도 올리고 굉장히 항거했어요. 그러다 말을 안 들으면 칭병을 한다고. ‘나 아프다’ 그리고 안 나갔어. 그리고 더 말 안 들으면 고향으로 가 버려요. 그런 장관들의 기개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공직자는 믿음과 신뢰예요. 우리 장관들에 대한 공직자들의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열렸던 현안질의에서 장관들의 태도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그렇고 오늘도 똑같은 결제가 느끼고 있어요. 계엄 잘못됐다, 그 계엄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 긴장해서 부처별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걸 해야지요.

대기업 500대 기업을 조사했다고 그래요. 68%가 내년에 투자계획을 아직 못 잡고 있답니다. 기업이 투자계획을 못 잡고 있으면 이게 되겠어요? 우리 산업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부존자원 없는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갈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기업들의 도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데가 산업부와 중기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계엄까지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실물 경제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한국은행에서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비상계엄으로 실물경제 타격’, 왜 이렇게 상반됩니까? 산업부에서 얼마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했는데 결과보고서도 하나 없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이브한 대처를 하고 있다. 이 계엄이 잘못된 건 분명히 알아요. 우리 장관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이 계엄이 잘못됐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윤석열 씨한테 무슨 배반이나 배신행위가 들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왜 이걸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계에 저희가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거나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교홍 위원** 아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래서 아까……

○**김교홍 위원** 아니, 수출이 올라갔어도 환율이 뛰니까 이익금이 없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거듭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그래서 환율 같은 부분은 금융 당국에서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저희도……

○**김교홍 위원** 그리고 중시가, 코스닥·코스피 144조가 계엄 후 4일 동안에 날아가 버린 것 아닙니까? 왜 문제가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김교홍 위원** 그런 걸 다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자, 보세요.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셨고 지금 산업부장관을 하시고 오영주 장관님은 외교부에서 잔뼈가 굵었고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관계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다고 국무회의 했을 때 외국이 그려지지 않나요, 외국의 상황? 대한민국의 외국에서의 위상 또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혼을 가지고 막았어야지, 이게. 안 됐으면 사표를 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관들이 사표 낸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저 뒤에 앉아 있는 공직자들이 너무 열심히 해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무직에 있는 분들이 책임 가지고,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자리에 연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는 이것 인정할 수 없다’ 사표를 던져야지,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따르고 믿음을 가질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행태를 우리 공직자들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없어도 뒤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거든. 정무직이라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대통령을 잘못 모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잘못 모신 것 아니에요? 잘 모셨으면 이렇게 합니까? 다 야당 평계만 대고 거짓말만 하고 되지도 않는 무슨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나 했다고 하고, 다 여러분들이 잘못 모신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확증을 갖게끔 한 것도, 아까 예산 문제 이런 것들도 확연히 우리

가…… 사실 원전 생태계는 매년 1000억씩 나가는 것 500억 더 올린 거예요, 이번에 1500억.

○위원장 이철규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김교홍 위원 그런데도 100% 완전히 다 삭감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대통령 본인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뻔하게 나와 있는 걸 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마치 여러분들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배신행위처럼, 그렇게 내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느껴지면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위원장 이철규 김교홍 위원님, 충분히 질책하시고 했으니까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김교홍 위원 정말로 비상사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앞으로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분석해서 다음번 우리가 전체회의 할 때는 생명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오늘 여당에서 박성민 위원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여야정협의체 해야지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경제문제라도 대책회의를 세워서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규 김교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저도 회의를 내내 함께하면서 참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분 장관님,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관님들께서 불법하거나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나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일분일초라도 그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하게 위축되거나, 불법을 저질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해야지 그것 때문에 일을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또 대통령께서 이제 권한대행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장관들의 책무가 더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우리 국회나 정치도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성찰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관님 현안보고서를 보면서 저도 여당 위원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실물경제 동향이나 평가가 거의 평이하다, 별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현장에서 지금 그 정보를 취합하고……

○박성민 위원 대응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응 계획이……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대응 계획, 평소에 하는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산업부에서 내놓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게 사실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회의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 국가 살림도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지금 다수당에서 여러 가지 입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하고 며칠 동안 의결한 예산이 예결위에 가서 전부 삭감되고 한 부분도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박성민 위원** 특히 대왕고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대표적으로 대왕고래였습니다.

○**박성민 위원** 동해 심해가스전 예산 98% 삭감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박성민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많은 위원들이, 삼십 분 위원들께서 절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준비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한 10% 정도는 삭감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게 거의 통째로 다 날아갔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게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장래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좀 복원이 될 수 있으면 하고 지금 바라고 있고요.

○**박성민 위원** 예결위 속기록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삭감 의견에 대해서 도대체 수긍이 안 됩니다. 그야말로 다수당이라는 그런 이유로 발목을 잡는다고밖에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웨스트 카펠라호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그 시추 위치에 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내일 시추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박성민 위원** 예산은? 1공을 시추하는 데 1000억이 들어가는데 500억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석유공사에서 자체 예산으로 그걸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자체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박성민 위원** 사채를 쓰겠다는데 맞습니까? 사채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채」하는 위원 있음)

예, 회사채.

○**박성민 위원** 회사채, 사채를 빌려서 500억 삭감된 부분에 쓰겠다고, 장관님 못 들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회사채 같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이미 시작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도 없고,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예산심의를 그렇게 심도 있게 한 예산도 예결위에서 전부 다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 소위 증액 예산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사상 초유로 10원도 없이 다 날렸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민생 안정을 위한 내수경기 마찬가지입니다. 농어민, 사회적약자, 경제 활성화 예산 1조 5000억, 재해대책 및 예비비, 대왕고래를 포함한 민생침해 수사경비 전부 다 삭감됐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기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저희 중기부 쪽 것들은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졌지만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전혀 근거 없이 예산이 모두 삭감됐고 문제는 예산을 삭감해 놓고 곧바로 또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함께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입법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현안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두세 가지만 궁금한 것 묻고 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촌에서 경제라든가 외교·안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입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경제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곧 들어섭니다. 우리 산업부에서는 특히 산업·통상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까 여러 여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는 정파를 초월해서 새로운 정부, 트럼프 정부와 인연이 있는, 또 당시에 함께 대화하고 협상했던 이런 인적자원들을 정파와 관계없이 총동원해서라도 우리 국익이 지켜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산업부장관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혹여나 작금의 우리 국내 상황이 두 코바니 원전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칠까 봐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다행히 거대 야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위원님들의 의견과 달리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야당 위원님들을 상대로도 잘 설득을 하시고 해서 국회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다행히 오늘 루마니아 원전 설비개선사업을 수주했다는 이런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거두어 준 산업부와 업계 관계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 두 분 장관님, 하루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겠지만 이런 문제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산업정책, 중소기업 정책 그 정책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책하시는 말씀 이것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역할을 더 열심히 잘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듣고 업무를 더 열심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고동진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송재봉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과 김완기 특허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

○출석 위원(29인)

강승규 고동진 과상언 권향엽 김교홍 김동아 김성환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한규 나경원 박상웅 박성민 박지혜 박형수 서왕진 서일준 송재봉 오세희
이언주 이재관 이종배 이철규 장철민 정진욱 주호영 허성무 허종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유인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제1차관 박성택

제2차관 최남호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기획조정실장 이용필

산업기반실장 오승철

에너지정책실장 이호현

무역투자실장 김대자

정책기획관 안창용

산업정책관 강감찬

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중견기업정책관 박덕열

전력정책관 이옥현

재생에너지정책관 정경록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원전산업정책국장 안세진
통상정책국장 장성길
무역정책관 조익노
투자정책관 유법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기획조정실장 이대희
창업벤처혁신실장 임정욱
정책기획관 노용석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정주
글로벌성장정책관 최원영
기술혁신정책관 김우순
지역기업정책관 김우중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상생협력정책관 김지현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황영호

특허청
청장 김완기
기획조정관 구영민
산업재산정책국장 김정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신상곤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이춘무
특허심사기획국장 정연우

【보고사항】

○의안 회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6)

이상 5건 11월 20일 회부됨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4. 11. 20.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6)

11월 21일 회부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1. 22.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2)

이상 3건 11월 25일 회부됨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 11. 25.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4)

11월 26일 회부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2)

이상 2건 11월 27일 회부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9)

이상 2건 11월 28일 회부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7)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1)

이상 4건 11월 29일 회부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5)

이상 4건 12월 2일 회부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6)

12월 3일 회부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2024. 12. 3.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1)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4. 12. 3.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2)

이상 6건 12월 4일 회부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204)

12월 5일 회부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8)

이상 2건 12월 11일 회부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8)

12월 12일 회부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1)

12월 13일 회부됨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2024. 12. 13.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8)

이상 2건 12월 16일 회부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2)

이상 3건 12월 17일 회부됨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15)

이상 6건 12월 1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2024. 11. 21.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5)

11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11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26	20	9	1	104
중소벤처기업부	12	7	15	1	42
특허청	3	1	5		22